

8월 Market Index			
↑ 코스피	3114.95	↑ 코스닥	784.24
	(+55.48)		(+5.78)
↓ 금리 (한국은행)	2.477	↓ 환율 (원·달러)	1367.25
	(-0.005)		(-0.55)



‘전력망’ 국가안보·경쟁력 열쇠 산업계, 수출 겨냥 기술 고도화

전력망 구축, 국가사업 격상
인허가 절차 대폭 개선 추진
관련 사업 인프라 구축 속도
두산·LS일렉트릭 기술 주목

전력망이 단순한 에너지 인프라를 넘어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전력망 확충에 정책적 드라이브를 거는 한편 국내 산업계도 글로벌 수출 시장을 겨냥한 기술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전력망 특별법’을 통해 전력망 구축을 국가 차원의 핵심 프로젝트로 격상시킬 예정이다. 이번 특별법은 국가첨단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전탑 건설 등 환경훼손과 지역 주민과의 갈등 등 사회적 불협화음을 해소하고 균형있는 전력 인프라 확산을 도모하는 목적도 포함된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과정에서 원전과 LNG 등을 활용한 안정적 전기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정부가 차세대 원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소형모듈 원자로(SMR) 사업이 조기 착공 국면에 들어서면서 관련 산업 전반에도 활력이 돌고 있다. 특히 SMR 제작·설계 기술을 보유한 두산에너지너빌리티는 에너지 기술 시장에서 빠

르게 입지를 넓히며 주목받고 있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이 중심이 된 ‘K-원전’의 26조원 규모 체코 원전 수주 계약이 최종 체결되면서 원전업계의 수익성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두산에너지너빌리티는 해당 사업에서 주요 기기 공급과 시공을 담당한다.

아울러 두산에너지너빌리티는 원자력 및 가스터빈 사업 본격화에 대응해 적기 생산 역량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원전 관련 기술 투자 규모는 지난 2023년 1846억원에서 지난해 2140억원으로 16% 확대됐다. 이 가운데 공장 신증설과 개보수에만 지난 2023년 533억원에서 지난해 723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HVDC)사업을 중심으로 한 전력망 확충 방안도 집중 논의되고 있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사업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서해안에 총 620km 길이의 해저송전망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이 대통령은 2036년이었던 목표시점을 2030년으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HVDC초고압 변압기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인 LS일렉트릭이 주목받고 있다. LS일렉트릭은 지난 2011년 부산에 HVD C 전용공장을 준공하고 HVDC 변압기 생산부터 설치까지 사업 전반에 밸류 체인을 구축해왔다. 이런 배경에서 업계는 LS일렉트릭이 ‘서해안 에너지 고

속도로’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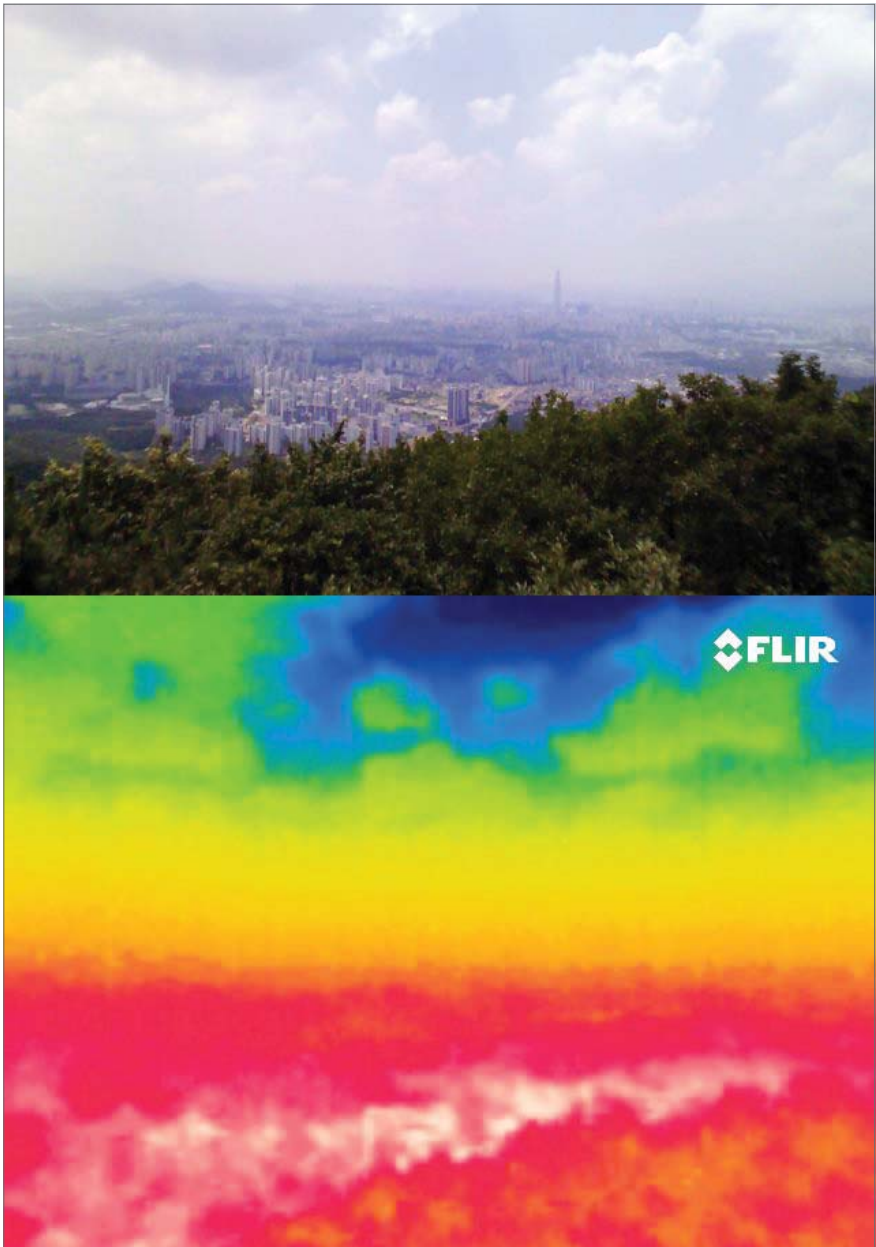
글로벌 경쟁 구도도 뚜렷해지는 분위기다. 미국은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설치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가스 발전도 지속적으로 중요할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진단된다.

아울러 국내 기업들은 수출 확대를 통한 글로벌 시장 확보에 발 벗고 나섰다. 두산에너지너빌리티는 SMR(소형모듈 원자로)과 기존 대형 원전 기술을 동시에 수출할 전략이다. LS일렉트릭 또한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배전반과 초고압변압기를 수출 중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전력망 사업을 국가 차원의 전략 사업으로 지정하면서 관련 사업 인프라 구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그동안 전력 설비를 구축하려면 입지 선정 등 인허가 절차가 복잡해 실제 사업 착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으나 법 제정으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면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송전로나 변전소 설치에 따른 지역 주민 반발은 여전히 변수”라며 “일부지역에서는 환경영향 등을 이유로 반대 여론이 형성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석탄 중심 에너지 공급을 유지하자는 의견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불타는 서울 도심

서울의 낮기온이 36도까지 오른 8일 오후 경기 성남시 남한산성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서울 도심이 붉게 보이고 있다.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은 온도가 높을수록 붉은색, 낮을수록 푸른색을 나타낸다. /뉴시스

트럼프, ‘韓 25% 관세’ 연기 이달 말까지 3주 추가 유예

내달 1일부터 상호관세 부과 통보
트럼프, 한국기업 미국 생산 유도

백악관발 관세부과의 유예 기한이 기존의 7월8일 자정(미동부기준)에서 7월 말 자정까지로 늘어났다. 연장된 시한은 우리 시간으로 8월1일 오후 1시다. <관련기사 4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발표한 유예 기한을 이틀 앞둔 7일 연장(3주 남짓)을 지시했다. 트럼프는 이 같은 내용의 ‘상호관세율 조정 연장’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 세계 각국이 대상이다.

행정명령문에서 트럼프는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 진행상황, 백악관 참모들의 권고 등을 토대로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그간 유예를 연장하는 대신 각국에 서한을 보내 관세율을 통보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실제 이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한국과 일본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날 연장 발표에 앞서 트럼프는 한국과의 무역 관계가 상호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8월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서한의 수신자는 ‘이재명 대통령’으로 명기됐다.

트럼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공개한 서한에서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관계는 상호주의와는 거리가 있다”며 “2025년 8월1일부터 우리는 미국에 들어온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물릴 것이다. 이 관세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라고 적었다.

이는 당초 오는 9월부터 적용 예정이던 25% 상호관세의 관세율은 유지한 채 부과 시점을 뒤로 미룬 것이다. 25%를 관철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최종 타결까지 시간을 더 확보하려는 심산인 것으로 풀이된다. <2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4.6조… 56% ‘뚝’

반도체 사업 부진·대외약재 여파
6분기 만에 5조원 아래로 내려가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반도체 사업 부진과 대외 약재 여파로 시장 기대를 크게 밀도는 실적을 봤다. 영업이익은 4조원대로 떨어지며 6분기 만에 5조원 아래로 내려갔다.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74조원, 영업이익 4조6000억원의 잠정 실적을 8일 발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09% 소폭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55.94% 급감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매출 6.49%, 영업이익 31.24% 각각 줄었다. <관련기사 4면>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



8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뉴시스

션(DS) 부문에서 대규모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반영되며 수익성이 악화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출하지연, 대중 수출 규제 등의 영향도 겹쳤다.

이날 발표된 영업이익은 주요 증권

가 전망치인 5조6000억원에서 6조원대보다 1조원 이상 낮은 수준으로, 어닝쇼크에 해당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 측은 “DS 부문이 재고 충당금과 AI 칩 대중 수출 제재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이익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메모리 부문은 일회성 비용이 반영돼 실적이 감소했지만, HBM은 일부 고객사에 평가 및 출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모바일경험(MX)사업부도 갤럭시 신제품 효과가 약화하며 비수기 영향이 나타났고, 생활가전과 TV 부문도 관세 부담과 시장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둔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혜민 기자 hyem@

메트로 한줄뉴스



▲李 대통령 “국무회의의 개인 정치에 활용해선 안 돼”… 이진숙 방통위원장 겨냥 /사진 뉴시스
▲박찬대, 윤상현 압수수색에 “체포동의안 넘어오면 통과시킬 것”

▲송언석, 특검 윤상현 압수수색에 “전형적인 정치보복”
▲안철수, 김문수·한동훈에 “전당대회 함께 출마해 혁신 경쟁하자”

▲유엔사 부사령관 “평양 무인기 침투 조사 중…세부사항은 못 밝혀”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법안, 與 주도로 교육위 전체회의 통과

기업들 머리 맞대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선점 ‘속도’

원화코인 제도화 가시권

은행의 자금, 핀테크 기술력 협업
업비트-네이버페이 이달초 맞손
카카오뱅크·토스뱅크, 발행 가능성

부산은행·경남은행·iM뱅크 등
지역은행 스테이블코인 경쟁 합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를 앞두고 기업 간 협업이 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시 시장 선점을 위한 ‘속도전’이 예상되는 만큼 업권별 특징점을 살려 경쟁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두나무)는 이달 초 네이버페이(Npay)와 제휴하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 선점을 위해 협업키로 했다. 관련 법안이 입법 단계에 있는 만큼 발행 주체나 협업 형태는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업비트가 유통을 담당하고 네이버페이가 발행과 오프라인 서비스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Chat GPT가 생성한 이미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기업 간 협업 사례도 늘었다. 국내 주요은행들은 지난 4월부터 오픈블록체인·DID협회(OBDIA)에 합류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융지주 차원에서는 블록체인 투자사인 해시드와의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초 스테이블 코인 상표를 다수 출원한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는 그룹 계열사인 카카오

페이 및 토스와 협업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통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기업간 협업이 활발해진 것은 신용, 기술력, 인프라를 함께 요구하는 스테이블코인의 특성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기존 화폐에 연동된 만큼 유통량이 많고 신뢰도가 높은 상품으로 수요가 몰린다. 소비자가 사용 및 매매가 불편한 코인을 선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막대한 자금과 높은 신용을 갖췄지만 가상자산을 발행할 기술력이 부족하다. 핀테크 기업들은 기술력을 갖췄지만 막대한 발행량을 감당하기 어렵다.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유통 경험은 풍부하지만, 외부 결제와 직결되는 인프라를 갖추지 못했다.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 이후 ‘속도전’이 예상되는 만큼 각 기업들은 자체 역량을 육성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협업을 선택하고 있다.

부산은행, 경남은행, iM뱅크 등 지역은행도 스테이블코인 경쟁에 뛰어 들었다. 3개 은행은 이달 초 독자적인 상표권을 출원하고 은행권 공동 연구에 합류했고, 외부 기업과의 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iM뱅크는 이달 초 간편결제·지역화폐 플랫폼 ‘제로페이’의 사업자인 다날과 업무 협력을 체결했고, 부산은행과 경남은행도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을 논의 중이다.

시장에서는 지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성이 높은 지역화폐와 공공 바우처 분야를 공략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화폐와 아동급식카드를 비롯한

공공 바우처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성이 높은 분야다. 발행에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신뢰도가 높고, 이력 추적도 가능해져 ‘상품권깡’ 등 불법행위도 예방할 수 있어서다. 한국은행이 주도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발행이 무산된 만큼 민간기업의 참여 여지도 크다.

지역은행은 전국 단위 인프라는 부족하지만 지역화폐를 비롯한 지역 사업 참여 경험이 풍부하다. 부산은행은 부산(동백진), 경남은행은 울산(울산페이)·창원(누리진), iM뱅크는 대구(대구로페이)·포항(포항사랑상품권)에서 지역 상품권을 유통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관련된 법안이 본격화하면 주도권 경쟁이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한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법안이 논의 단계에 머무르는 만큼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는 기업도 많다”라면서 “향후 관련 법안이 구체화하고 나면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협업 사례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신동빈 등 롯데 경영진, 1박2일 마라톤 쉐션

롯데그룹, 16~17일 ‘하반기 VCM’ ‘엄중한 상황’ 인식… 체질개선 나서

롯데그룹이 다음 주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도 오산에서 ‘2025 하반기 옛 사장단회의(VCM)’를 연다. 하루 내 일정으로 진행됐던 기존 VCM이 1박 2일로 확대되면서, 고강도 조직 쉐션 논의가 보다 심층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8일 재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이달 16~17일 경기도 오산 롯데인재개발원에서 하반기 롯데 VCM을 진행한다.

VCM은 롯데지주부터 시작해 계열사 대표 및 관계자 총 80여 명이 참석하는 전사 협의체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정례적으로 개최됐다. 올해 상반기 VCM은 지난 1월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렸으며, 약 6시간 가량 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행했다.

하반기 VCM은 통상적으로 상반기 경영 성과를 점검하고 동시에 하반기 목표를 공유하는 자리다. 하루 일정으로 진행됐던 VCM들과 달리, 올해 하반기 회의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만큼, 고강도 쉐션에 대한 더 엄중한 사

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고강도 혁신을 꾀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신 회장은 지난 1월 진행된 상반기 VCM에서 “지금 쉐션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 강조한 바 있다.

이어 그룹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전통을 이어온 사업일지라도 새로운 시각에서 사업모델을 재정의하고 사업조정을 시도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리스크가 잔존해 있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보다 높은 쉐션책이 공유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롯데케미칼은 실적 부진으로 국내 신용평가사들에 의해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롯데지주 역시 이 영향을 받아 함께 신용 등급이 떨어진 바 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2026년 최저임금 ‘870원’ 입장차 여전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으나 최종 합의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 양측은 8일 오후 4시 기준 간극을 1000원 미만까지 줄였지만 입장 차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세종 고용노동부 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양측이 제시한 액수의 차이는 최초 1470원에서 870원까지 좁혀진 상태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수준 결정은 물가 사각지대에 쉽게 노출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수와 같은 일”이라며 “1만1020원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생계를 고려한 적절한 수준”

이라고 주장했다.

이미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24년 생계비는 7.5% 상승했지만 최저임금은 2.5% 오르는 데 그쳤다. 2019년부터 지속된 최저임금 산업법위 확대도 실질임금은 오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대내외적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고율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은 소위 경제적·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1만 2000원, 사회보험과 같은 간접비용까지 더하면 1만4000원에 달한다”고 했다.

최저임금 고시가 매년 8월 5일이기 때문에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韓, 건설업 부진 속 대외여건 악화”

KDI, 7월 경제동향 보고서 “제조업 조정… 생산 증가세 약화”

국내 경제가 ‘낮은 수준’의 경기국면에 머물러 있다는 진단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발표한 ‘2025년 7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건설업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외여건도 악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제조업도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생산 증가세가 약화됐다”며 “소비심리가 회복세를 보이며 내수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상호관세유예 종료가 다가오며 통상 관련 불확

실성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KDI는 “경기가 전월과 비슷한 정도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5월 전산업생산은 전년동월 대비 0.8% 줄었다. 광공업생산 증가 폭이 크게 줄고 건설업 부진이 심화하면서 전월 0.5%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했다.

특히 건설업 생산은 -20.8%를 기록해 전월(-21.1%)과 유사한 수준의 극심한 위축세를 보였다. 주거용·비주거용 건축 모두 부진했으며, 토목 부문도 플랜트 중심으로 크게 감소했다.

미국발 관세조치의 영향으로 수출은 낮은 증가세에 그쳤고 통상 불확실성도 높은 수준을 지속했다. 6월 수출은 전월(-1.3%)에서 4.3% 증가로 전환됐지만, 이는 선박수출(67.4%)의 일시적 급증 영향이 컸다.

대 미국 수출은 자동차(-16.1%) 관세 부담이 계속되면서 1.9% 증가에 그쳤다. 대 중국 수출도 반도체 부진(-6.2%) 영향으로 소폭 감소(-0.4%)했다.

내수 측면에서도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 소매판매는 전년동월 대비 0.2% 감소했다. 승용차(13.4%) 판매가 개별 소비세 인하 효과로 급증했으나 승용차를 제외하면 1.6% 줄었다. 다만 소비자심리지수는 큰 폭으로 회복됐다.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8.7로 전월(101.8)과 비교해 크게 올랐다.

/세종=김연세 기자

트럼프 “美서 제품 만들면 관세 없을 것”

>> 1면 ‘트럼프, 韓 25% 관세…’서 계속

한국이 그간 협상에서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는 식의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트럼프는 한국 기업이 생산기지를 미국에 두기를 희망했다. 그는 “알다시피 한국이나 당신 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기로 결정한다면 관세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실제로 우리는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고 전문적이며 정례적으로 하기 위한 모든 가능일 하겠다. 다시 말해 몇 주 내 인허가를 내준다는 얘기”이라고 썼다.

또 “우리는 한국과의 무역 관계를 논의

할 수 있는 수년간의 시간이 있었다. 한국의 관세·비관세장벽, 정책이 초래한 이런 만성적 무역적자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한편, 트럼프는 행정명령에서 8월 중순까지 상호 간 보복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중국과의 합의는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설명회에서 “상호관세나 해외 정상들에게 발송된 새로운 관세율이 다음 달부터 적용되거나 다음 달 이전에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들 국가들은 미국과 계속 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액체냉각 B2B 사업 박차… 엔비디아 등 공급망 진입 협의”

LG전자 간담회

이재성 부사장, 미래사업 비전 공유
마곡 연구단지 HVAC 장비 첫 공개
“글로벌 빅테크 기술 협력 확대”

“엔비디아 등 생태계 강자로의 공급망 진입을 위해 협의 중이며, 마이크로소프트(MS) 같은 글로벌 빅테크와도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재성 LG전자 ES사업본부장 부사장이 8일 서울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공지능(AI) 시대에 급증하는 전력과 열을 잡기 위한 냉각 기술이 기업간거래(B2B) 사업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면서다.

LG전자가 핵심 무기로 내세운 것은 물을 활용한 액체냉각 기술이다. 기존 공기냉각방식보다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크고, 서버 칩 등 고발열 부품을 직접 식힐 수 있다.

이날 LG전자는 마곡 연구단지 지하 3층 추구장 25개 크기 공간에 설치된 냉



LG전자 ES사업본부장 이재성 부사장이 8일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HVAC(냉난방공조) 사업 전략방향과 AI 데이터센터향 솔루션 등을 소개하고 있다.

난방공조(HVAC) 장비를 언론에 처음 공개했다. 높이 4m에 달하는 흡수식 칠러와 터보 칠러, 스크류 칠러 등 대형 냉방기가 줄지어 설치돼 있었고, 제빙기와 냉수 배관이 건물 곳곳에 시원한 공기를 공급하고 있었다.

이 부사장은 “CDU는 단품 매출뿐 아니라 다양한 파생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랫폼”이라며 “올해 데이터



LG전자가 8일 서울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ES사업본부의 사업 전략방향과 AI 데이터센터향 HVAC 솔루션 등을 소개했다. 마곡 LG사이언스파크 메인 기계실에 설치된 터보 칠러. /LG전자

센터향 냉각 솔루션 수주를 지난해보다 3배 이상 확대하고, 기존 시장보다 2배 빠른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AI 확산에 따라 데이터센터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시장은 2023년 17조원에서 2028년 34조원 규모로 두 배 가까이 성장할 전망이다. LG전자는 이 같은 흐름

에 맞춰 칠러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칠러는 물을 차갑게 식혀 건물이나 서버실을 냉각하는 장치다. LG전자는 2년 내 칠러 사업 매출 1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인버터 스크류 칠러는 미국 배터리 공장, 국내 화학플랜트 등에 공급되며 올해 5월까지 누적 매출이 전년 대비 약 30% 성장했다.

또한, 이런 시장 변화에 맞춰 사업 구조도 혁신하고 있다. 현재 10% 수준인 비하드웨어 매출 비중을 20%로 높이고, 유지보수 구독 서비스를 확대해 수익 구조를 다변화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확장을 위해서는 ‘현지 완결형 밸류체인’ 체제를 구축 중이다. 이 부사장은 “국내 창원에만 있던 제품 개발 전담조직을 인도에 신설할 예정”이라며 “현지 고객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고, 인근 국가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회사하이엠플솔루션을 통한 현지 서비스망 강화와 함께 최근에는 100년 전통의 유럽 프리미엄 온수 솔루션 기업 ‘OSO’를 인수하며 유럽 HVAC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이 부사장은 중국 기업과의 경쟁 관련 질의에 대해 “중국 기업의 추격에 대해서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면서도 “LG전자만의 기술력과 경쟁력으로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폐열 활용 등 첨단기술 집약… 냉방 효율 극대화

④ 데이터센터 전력난 해법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데이터는 ‘21세기 원유’로 불릴 만큼 현대 사회의 핵심 자원이자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데이터센터(DC)’는 이제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는 필수 인프라가 됐다.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데이터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고, 이에 비례해 DC의 전력 소비량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데이터센터는 365일 24시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막대한 양의 전력을 사용한다. 디지털 트래픽 폭증과 생성형 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데이터센터의 전력 문제는 비단 개별 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넘어 국가 전력 공급 안정성, 나아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도 직결되는 중차대한 과제다. <메트로경제신문>은 2회에 걸쳐 국내 주요 데이터센터 운영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전력 소비 문제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려나가는지 심층적으로 짚어본다. <편집자주>



네이버 클라우드 센터.

네이버클라우드
‘AMU·NAMU’ 독자기술 적용

CJ올리브네트웍스
전력 모니터링 솔루션 고도화

LG CNS
설비 통합관리 시스템 활용

감하고 있다. AMU는 외부 공기를 필터링해 직접 이용하거나 미세한 물 입자를 뿌려 온도를 낮춘 후 냉방에 이용하는 기술이다. NAMU는 찬물이 흐르는 벽을 통해 공기를 통과시켜 기화 작용으로 온도를 낮추는 시스템이다. 이외에도 네이버클라우드는 태양광 발전, 중수 재활용, 폐열을 활용한 스노우멜팅 시스템 등 친환경 설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CJ올리브네트웍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사용량은 매출과 함께 소폭 증가했다. 회사는 전력 모니터링 솔루션으로 상시 전력 사용량을 체크하고,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에 대비해 UPS(무정전전원장치)와 발전기를 연 2회 이상 점검·운영하고 있다.

효율화 노력도 구체적이다. 냉동기와 냉각탑 등 공조 설비를 인버터 방식으로 교체하고, 미사용 IT 장비 철거, 유휴서



LG CNS 부산 글로벌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버 발골을 통해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미사용 서버 전원 차단으로 연간 43만3270kWh, 2024년에는 사무용 냉난방기를 고효율 장비로 교체해 2만7172kWh를 아꼈다.

LG CNS는 DC별 전력 효율화와 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 노력으로 지난 3년 동안 전력 사용량이 꾸준히 감소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여름철 전력난 대비 전략의 일환으로 데이터센터 기반 설비 통합관리 시스템(DCIM)을 활용해 전기, 온도, 습도, 조명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제어하고 있다. DCIM은 냉각 시스템과 공기 흐름을 최적화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솔루션이다.

회사는 정부 국책 과제를 통해 액침냉각 기술 연구 개발을 진행, 전력 효율화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LG CNS는 태양광 발전 설비 증설 등 재생 에너지 활용도 적극 확대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산업의 발전은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합리적인 규제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업계에서는 전력 요금 체계 개선,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지원,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전력망 확충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김현정 기자 hjk10

K프랜차이즈, 도쿄 등 핵심상권 진출 글로벌 ‘프리미엄 테스트베드’ 조성

③ 일본

치킨·버거 등 외식 소비자 점점 확대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들이 일본 시장에 앞다퉈 진출하고 있다. 일본 소비자의 입맛을 정조준한 치킨·버거 프랜차이즈는 물론, 한국형 카페 문화와 디지털 브랜드까지 일본 시장을 ‘테스트베드이자 전략 거점’으로 삼아 속속 상륙 중이다.

도쿄·오사카 등 핵심 상권에서는 K-푸드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본이 동아시아 외식 기업의 글로벌 교두보로 재조명받고 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맘스터치’의 시부야 직영점이다.

작년 4월, 일본 맥도날드가 39년간 운영한 자리에서 문을 연 ‘시부야 맘스터치’는 올해 3월 기준 누적 방문객 수 70만명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약 5억 1000만엔(한화 약 5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는 현지 1위 일본 맥도날드 연간 평균 매출의 약 2배, 모스버거의 약 7배에 달한다.

‘간부치킨’도 지난 4월 도쿄 하라주쿠에 1호점을 오픈했다. 바삭한 후라이드치킨과 순살 치킨 등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익스프레스 콘셉트를 앞세웠고, 도쿄 중심부 복합공간인 ‘하라카도’에 입점하며 유동인구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커피 프랜차이즈도 일본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할리스’는 지난해 5월 일본 오사카 난바에 첫 매장을 연 뒤, 올해 3월 비즈니스 중심가 혼마치에 2호점을 열었다. 진출 1년 만에



‘시부야 맘스터치’ 전경

/맘스터치

누적 방문객 30만명을 넘기며, 하루 평균 700여 명이 방문하는 카페로 자리 잡았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요거트아이스크림의 정석(요아징)’이 오는 7월 11일 도쿄 하라주쿠 다케시타 거리와 신오쿠보에 동시 오픈을 앞두고 있다. 미국 하와이 매장에서 일본인 관광객 반응을 확인한 뒤 일본을 아시아 진출 전략의 핵심으로 판단, 올 하반기부터 전국 단위 확장을 준비 중이다.

이같은 활발한 진출은 일본 시장이 가진 구조적 특성과 밀접하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성숙한 소비 시장이자, 외식 기업에게 ‘프리미엄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트렌드 수용력이 빠른 청년층을 중심으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고도화된 장인정신과 한국식 맛·서비스 간 융합 가능성도 크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은 외식 프랜차이즈의 ‘불모지’로 여겨지던 시절도 있었지만, 최근엔 K-푸드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고 소비자 수요가 현실화되고 있어 전략적 가치가 크다”며 “정부나 코트라, aT 등도 진출기업 대상 워크숍과 현지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조속한 합의보다 국익 최우선… 대미 협상에 만전 기할 것”

美, 관세부와 내달 1일로 유예
위성락 실장, 미국 국무장관과 협상
조선업 협력 등 실질적 성과 도출
협상 기회확보, 시장다변화 방안 주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세 25% 부과 계획을 적시한 서한을 보냈다. 서한은 당초 이달 9일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25% 상호관세율은 유지하고 부과 시점만 내달 1일로 3주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사실상 3주를 번 셈이다.

이에 미국을 방문 중인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내달 1일까지 합의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또 대통령실도 조속한 합의와 함께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8일(이하 한국시간) 대통령실은 위성락 실장이 루비오 장관과 미국 워싱턴D.C.에서 협의를 갖고 고위급 교류를 포함한 한미 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 회담 개최를 통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이 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안보실장 협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 측은 공감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대상 관세 서한이 이날 발송됐으나, 실제 관세 부과 시점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이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또 한미 조선 분야 협력과 관련해 양측은 정부와 업계 등 다양한 영역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이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상호호혜적인 협력 방안 도출에

있어 관건인 만큼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미 간 제조업 협력 방안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자동차·철강 등 품목 관세에 대한 우호적 대우를 요청했다. 여 본부장은 위 실장보다 하루 먼저 미국에 도착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실질적인 관세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 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보낸 데 대해 이날 ‘대미(對美) 통상 현안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로 개최하고, 관련 부처에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기획재정부 이형일 1차관, 외교부 김진아 2차관, 산업통상자원부 문신학 1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달 남짓 기간 동안 한미 통상장관·안보실장 협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 양자·다자회의 계기에 양국 간 호혜적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해 최종 합의까지 도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며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7월 9일부터) 관세율이 인상되는 상황은 피했고 7월 말까지 대응 시간을 확보했다”며 시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대미 협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실장은 “다행히 현재 시장 반응은 차분하나 수출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자동차·철강 등 국내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라”며 “시장 다변화 등 수출 대책도 보강해서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김 실장은 현재 방미 중인 위성락 실장이 귀국하면 정책실·안보실 간 공동 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책을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오는 9일 귀국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8월 1일까지 협상 기한을 얻은 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일부 국가는 오히려 관세가 오르기도 해서,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새 정부 출범 후 시간이 촉박했던 데 비하면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확보된 협상 시간 만큼 위 실장도 고위급 회담을 이어가고 있고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바라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자동차·철강업계, 수출다변화·생산확대… 정부는 협상 강화

상호관세 타격 최소화 대응책
자동차, 현지생산 확대·가격 조정
철강, 원자재 공급망 재편성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자동차업계와 철강업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다.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는 생산 확대, 공급망 재편성, 가격 인상 등 다양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

령은 7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 등 14개국에 25~4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적시한 ‘관세 서한’을 보내 이를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당초 오는 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25% 상호관세의 관세율은 유지한 채 부과 시점을 뒤로 미룬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성실하게 임했다고 판단하고 상호관세율 25%를 관철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합의를 위해 협상 시간을 더 확보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간 새로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로 다음 달 1일이 되면 원래

대로 25%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자동차·철강업계는 상호관세 부과에 대비해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미국 내 생산 확대와 공급망 재편성을 통해 상호관세의 영향을 줄일 계획이다. 현대차는 미국에서의 생산 비율을 높이기 위해 현지 생산 확대에 나설 예정이며, GM과 포드는 미국 내 생산 비중을 늘리고, 멕시코에서 생산된 일부 모델의 가격을 인상할 방침이다.

또한 전략적 가격 조정을 통해 자동차업체들은 가격 인상과 동시에 경제적인 모델을 출시하거나 할인 혜택을 제

공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철강업계 역시 가격 인상과 함께 생산 및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해 상호관세의 영향을 상쇄하려고 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미국 외 다른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 유럽, 아시아, 중동 등 새로운 시장을 공략해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상호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이다. 또한, 원자재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국내 생산 공장을 강화해 생산과 유통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내수 시장을 적극 공략하는 전략도

중요하다. 국내 건설, 조선, 자동차 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외국 시장에서의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내수 수요를 확대할 수 있다. 정부도 이번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최선의 협상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연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남은 기간 동안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상호관세를 기본관세 수준으로 낮추고, 자동차와 철강 품목에 대한 관세 폐지 또는 대폭 인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예상보다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 향후 협상에서 더욱 치열한 기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삼성, 2분기 반도체 실적 ‘어닝 쇼크’… HBM·재고 손실 악영향

대중국 제재 등 DS부문 수익성 직격탄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낸 배경에는 반도체 부문에서의 복합 악재가 작용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납품 지연, 대규모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인공지능(AI) 반도체 대중국 수출 제재가 동시에 반영되며 영업이익이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서는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비메모리) 모두에서 재고 손실이 발생했다. 출하되지 않은 재고의 가치 하락을 반영해 회계상 손실로 처리한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이 회회성비용으로 대거 반영되며, 실적에 직격탄

이 됐다. 전략제품인 HBM도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 AMD 등 일부 고객사에는 출하가 시작됐지만, 최대 고객사인 엔비디아와의 거래는 아직 품질 검증(퀄테스트)을 통과하지 못해 출하가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미국 정부의 AI 반도체 대중국 수출 제재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비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제한되면서 관련 재고 손실이 발생했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 역시 중국 고객사 수요 둔화와 공정 전환 지연으로 적자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는 DS 부문의 2분기 영업이익을 1조원 안팎으로 추정한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실적에 대해 “재고 충당금과 대중국 수출 규제 영향 등으로 DS 부문

이익이 전 분기 대비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에선 2분기를 실적 저점으로 보고 있다. 메모리 가격 상승과 함께 하반기 HBM 출하가 본격화하면 반도체 중심의 실적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 전망이다.

김목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D램은 업황의 수급 밸런스가 안정화하면서 가격 상승 구간으로 진입했다”며 “출하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 방향성이 명확해 전자 실적을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채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단기적인 실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HBM 시장 진입과 수출 개선 여부에 따라 주가의 리레이팅(재평가) 요인이 열려 있다”고 판단했다. /이해민 기자 hyem@

트럼프 관세서한에도 코스피 3100선 ‘회복’

美증시 ‘흔들’, 韓증시 타격은 제한적

코스피가 8일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서한에도 3100선으로 날아올랐다. 전문가들은 미국발 상호관세 리스크가 이미 국내 증시에 선반영됐고, 7월 기점으로 이슈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1.81% 상승한 3114.95에 장을 마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품목별 관세와 별도로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2일 미국이 발표한 수치(25%)에서 변동이 없었다.

이에 국내 증시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듯했지만, 국내 증시 개장 직전 트

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교역국에 보낸 서한에 담긴 상호관세 부과 계획은 무역 협상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7월은 상호관세 리스크가 확산되는 국면이 아닌 본격적인 해소 국면이라고 판단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 발송으로 단기적으로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유럽연합(EU)과의 관세 협상 타결이 임박했고 주요국과의 관세 협상이 시한이 연기됐다는 점에서 관세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을 크게 흔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하은 기자 godhe@

SK하이닉스가 만드는 AI 시대의 길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로
AI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 갑니다

Full Stack AI Memory Provider

We Do Technology | SK hynix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민주당, 방송3법 이어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처리 속도

진성준 “방송3법, 국회 과방위 통과尹 거부했던 법안 처리하는 것은민주주의·민생 되살리는 첫걸음”

野 “입법 강행 계속 밀어붙인다면협치 무너지고 극한 대치 치달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의 표결까지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을 중심으로 처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엇보다 윤석열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막혀 있는 민생의 활로를 뚫는 일이 중요하겠다”며 “상법에 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3법’이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방송3법은 방송을 정권의 손에서 국민의 손으로 넘겨주기 위한 법”이라며 “일반 국민 100명 이상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으로 구성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사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고, 이사회가 특별다수결로 그 중 한 사람을 선출해서 임명 제청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 여당보다 야당이 입법에 앞장서야 할 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집권여당의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등 윤석열 정권이 거부했던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생을 되살리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의 말처럼 과방위는 전날(7일)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방문진) 및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각

각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방송3법은 과거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는데, 정권 교체 이후 민주당이 처리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거부권에 직면했던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 쌀 과잉 생산 시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등의 처리도 예고한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 후, 집중투표제 의무 도입·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더 강화된 ‘상법 개정안 시즌 2’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의 입법 강행을 지켜만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상견례에

서 “다만, 현실에서 이견이나 논란이 존재하는 법들이 있다. 아시다시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양곡관리법, 농업4법, 방송3법, 화물운수사업법 등이 일방통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으로 대안을 찾아 나가는 방법을 택했으면 한다”고 여당의 배려를 당부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입법은 권력을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시장의 신뢰를 지키는 설계 작업”이라며 “특히 상법처럼 국가 경제의 질서를 좌우하는 법은 ‘더 강하게’가 아니라 ‘더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7월 임시국회가 막 시작된 지금이야말로, 여야가 민생과 협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시점”이라며 “민주당이 입법 강행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협치는 무너지고 정국은 극한 대치로 치달을 수밖에 없음을 유념하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국민의힘 “국민들과 함께 ‘李 정부 인사’ 검증하겠다”

‘李 정부 공직후보자 국민검증센터’ 유상범 필두 16개 상임위 간사로 구성 장관 후보자 도덕성·정책역량 검증

국민의힘이 다음주부터 시작될 주요 공직 후보자들 대상의 청문회 정국을 앞두고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과 정책역량 등을 검증하는 ‘이재명 정부 공직 후보자 국민검증센터’를 출범했다.

국민의힘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이재명 정부 공직 후보자 국민검증센터’ 현판식을 열었다. 국민의힘은 국민검증센터에서 국민께 직접 공직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보받아 검증키로 했다.

국민검증센터는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단장으로 하고,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16개 상임위원회 간사를 단원으로 꾸렸다.

국민의힘은 당 홈페이지에 이날 9시부터 ‘국민검증 제보센터’를 개설해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부적격·부도덕·불성실 후보자에 대한 인사를 막아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 인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되며, 제보 내용이 인사청문회 자료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현판식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 참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무총리 김민석 후보자 때부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불법과 위법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를 임명하니 장관 후보자들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태세”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엔 응하지 않고 뭉개면 된다고 하고 있다”며 “청문회에서 철저하게 따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청문회를 거치면서 보여준 검증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가 다른 장관 후보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자

료 제출 거부, 의혹 해명 거부, 오로지 청문회에서 하겠다고 한다. 이제는 국민들과 함께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앞서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후보자들의 연구윤리 위반, 부동산 투기, 편법증여, 이해충돌 등 온갖 부정과 비리로 가득하다”며 “도덕성 문제도 심각하지만 후보자들의 정책 역량 부족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진숙 후보는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종합적 정책역량이 결여됐다는 평가다. 정동영은 실패한 대북정책 책임자로서 현실정책대안이 부재하고 통일부 명칭 변경 언급 등 헌법 정신과도 괴리된 인식을 보인다. 김영훈 고

용부 후보자는 고용 유연성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 자질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며 “다수 후보자들의 정책 역량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인사강행에만 몰두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다음주는 일주일 내내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청문회가 집중적으로 열린다.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재수 해양수산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5일에 권오을 국가보훈부·김성환 환경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16일에 정성호 법무부·김영훈 고용노동부·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17일에 조현 외교부·김정관 산업부·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18일에 윤호중 행정안전부·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박태홍 기자

李 대통령, ‘방산 육성 컨트롤타워’ 신설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무회의의 주재... 조달청 보고도 받아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제1회 방위산업의 날을 맞아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목표 달성을 이끌 방산 육성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방위산업의 날은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방산업계 종사자의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2023년 8월 신설된 국가기념일로, 이날 오후 서울에서 첫 기념식이 열렸다.

이 대통령은 “6·25전쟁 당시에는 탱크 한 대도 없던 우리 대한민국이었는데, 75년 만에 세계 10위의 방산 대국으로 성장했다”며 “최근엔 폴란드와 9조 원 규모의 K-2 전차 수출 계약을 체결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위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기도 하다”며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해외 판로 확대 등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가안보실 내 방위산업담당관을 경제수석실 산하로 이관하고,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하며 방산 정책금융 체계 개편 등을 공약한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 내 방산전담담당관을 신설했는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방위산업담당관 혹은 방위산업 TF 관련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나와있거나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기 때문에 아직 말씀드

릴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백승보 조달청 차장으로부터 부처 보고를 받았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백 차장은 “조달청이 (외청 중) 제일 먼저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사항을 매우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면서 “조달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 조달 강화와 관련해선 “연구개발(R&D) 예산 못지않게 인공지능(AI) 등 혁신기업 물품과 서비스 구입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며 “새로운 기술과 제도로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들을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부처가 아닌 외청까지도 보고를 직접 받게 된 배경에 대해 “(대통령이) ‘경기지사 책임 시절 개별 지자체가 구입했을 때 더 경제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조달 항목이 있었는데, 조달청에서 일시 구매하는 데 대해 더 합리적

인 방안은 없는지 보고를 받았으면 싶다’고 말했다고, 그에 대해 조달청이 업무보고와 함께 여러가지 개선안을 가지고 왔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의 개선 방안을 들은 이 대통령은 “한 가지가 바뀌게 되면 다른 부작용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이뤄져야 한다”며 다양한 (개선안) 제안과 부작용 검토 등을 한시간 넘게 진행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 말미에 국무회의 및 배석자들을 향해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기에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며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고 한다.

이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전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방송, 언론장악 생각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방송3법에 대해) 위원회안을 만들어보라고 했다’고 발언한 데 대한 경고로 보인다. /서예진 기자 syj@



ANGELINUS

2년 새 설계사 7만명 쏟아낸 보험사… ‘질적 부실’ 경고등

디지털 전환 외치더니 채용공세
GA 시장 중심 대면 채널 급팽창
정착률 평균 밑돌며 부실 우려 ↑
“단기성과 집착… 조직역량 저하”

보험사의 설계사 채용 공고가 쏟아지고 있다. 보험 모집 채널을 온라인으로 돌리겠다던 기존 입장과는 다른 행보다. 현장에선 대면 인력 확보가 실적에는 긍정적이지만 정착률 급락과 교육 공백이 겹치면서 ‘질적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말 기준 보험설계사는 47만2000명으로 2년 만에 7만명 늘었다. 전속 설계사는 연평균 7.2%, GA(독립법인대리점) 소속은 7.8%씩 증가했다.

생명보험사는 신규 계약금액의 99.3%를 ‘설계사·방카슈랑스·TM’ 같은 대면 채널에서 거둬들였다. 온라인



Chat GPT가 생성한 보험사 설계사 모집 이미지.

(CM) 판매 비중은 0.4%에 불과하다. 손해보험사 역시 초회보험료의 71.4%가 설계사 손을 거쳐 판매된다.

설계사 확보 경쟁의 1차 동력은 IFR S17이다. IFRS17 체제에서 고수익 보장성 신계약을 많이 팔아야 계약서비스

마진(CSM)이 늘어나자 대면 채널인 ‘헤드카운트’ 확장이 가장 손쉬운 선택지가 됐다.

GA 시장에선 몸집 불리기가 거세다. 신규 GA 설계사 4만7000명 가운데 무경력 신입이 31.1%, 20·30대 비중이

27.7%로 청년층 유입이 뚜렷하다. 대형 GA(설계사 500명 이상)는 2년간 연 12.2%씩 팽창했고, 중형 손보사는 ‘플랫폼형 모집 조직’으로 연 15% 안팎 인력 증가를 기록했다.

메리츠·롯데손보 등 일부 손보사는 ‘N잡러’ 플랫폼 모델로 설계사를 끌어들이고 있다. 대형 GA는 인수·합병과 스카우트로 몸집을 불렸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피플라이프·아이에프씨그룹 인수, iFA의 에인스 합병이 대표적이다.

다만 급격한 확대 뒤엔 부작용도 뚜렷하다. 대형 GA 인수·합병과 ‘N잡러’ 유치가 겹치면서 청년층도 대거 유입됐지만 정착률 하락과 불완전판매 리스크가 새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산업 판매인력 증가 현상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대규모 인력 충원이 이어진 조직의 경우 판매자로 등록한 후 지속적으로 모집활동에 참여하는 지표인 ‘설계

사 정착률’이 시장평균을 하회했다. 실제로 판매인력이 급증한 손보사의 전속 설계사 13회차 정착률은 46.3%로 업계 평균(55.9%)을 크게 밑돌았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기관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보험사가 GA에 보험상품 판매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판매위탁 리스크’ 관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인력관리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급격한 판매인력 증원은 신규인력에 대한 완전판매 교육이나 이들을 조직에 적응시키는 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어렵게 함으로써 영업조직의 생산성 개선이나 전문적 판매자 양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단기성과를 목적으로 한 급격하고 과도한 인력 충원은 대량이탈과 유지·관리서비스 저하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분쟁 난무 지역주택조합, 실태점검 나선다

전국 618곳 중 187곳 분쟁 발생
시공비 갈등·탈퇴 지연 잇따라
정부, 8월까지 전수조사 실시

#. 00지역주택조합 A 조합장은 지정된 신탁 계약자 아닌 금융기관 계좌로 가입비 등을 받다가 횡령·배임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 00지역주택조합 B 시공사는 실착공지연,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최초 계약금액보다 공사비를 50%나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지역주택조합 3곳 중 한 곳은 조합운영 비리 등 분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전국 모든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8일 국토교통부가 현재 진행 중인 전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분쟁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187개 조합(30.2%)에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주택 수요자가 스스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토지확보의 어려움과 추가분담

금 문제에 따른 조합원 피해와 낮은 성공률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전체 조합 중 절반이 넘는 316개가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모집단계에 머물러 있다. 모집신고 후 3년 이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도 33.6%인 208곳에 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최근 사업추진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 간 분쟁,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과 조합원 피해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자체를 통해 전체 지역주택조합 현장에 대해 분쟁현황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사업초기 단계인 조합원모집·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운영(52건)이 가장 많았고, 탈퇴·환불 지연(50건)이 그 뒤를 이었다.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사업계획승인 이후로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11건) 등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이 발생한 187개 조합 중 조합원

모집단계인 조합이 103개, 설립인가된 조합과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이 각각 42개였다. 사업초기 불투명한 정보와 토지확보 및 인허가 지연 등에 따른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 110개 조합 중 63개 조합에서 분쟁이 발생했으며, 경기(32개/118개)와 광주(23개/62개)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곳에서 주로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618개 모든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지자체를 통해 8월 말까지 전수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분쟁사업장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중재·조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황조사와 실태점검 등을 통해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서울 아파트 경매, 3년 만에 최고 낙찰가율

(98.5%)

강남·외곽 고가단지 모두 강세
수도권 전반 낙찰률·응찰자 수 ↑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이 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며, 낙찰가율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도권 전반으로는 낙찰률과 응찰자수가 동반 상승하며 회복세가 이어졌고, 지방은 지역별로 강세와 약세가 뚜렷이 엇갈렸다.

8일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5년 6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98.5%로 전월(97.7%) 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2022년 6월(110.0%)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낙찰률도 46.5%로 전월(45.2%) 대비 소폭 상승했다.

서울 강남권뿐 아니라 노원·도봉·구로구 등 외곽지역에서도 고가 낙찰 사례가 이어졌다. 첫 회차 낙찰 비율도 전체의 31%에 달하며 낙찰률 상승에 영향을 줬다. 경기도는 성남시 분당구와 용인시 수지구를 중심으로 낙찰가율이 상승했다. 경기 아파트 낙찰가율은 89.7%로 전월(87.6%) 대비 2.1%포인트(p) 올랐고, 낙찰률은 51.2%로 5.7%

p 상승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11.1명으로 전월(9.9명)보다 1.2명 증가했다.

반면 인천은 전세사기 피해주택 물량의 영향으로 낙찰가율이 하락했다. 낙찰률은 40.4%로 전월(35.4%) 대비 5.0%p 상승했지만, 낙찰가율은 79.0%로 전월(82.2%)보다 3.2%p 하락했다.

6월 전국 최고 낙찰가 물건은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 위치한 공장으로, 감평가 898억6716만원의 72.6%인 652억1000만원에 낙찰됐다. 입찰자는 1명이었으며, 낙찰자는 법인으로 확인됐다. 2위는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소재 근린시설로, 감평가 299억290만원의 107.4%인 321억100만원에 낙찰됐다.

/전지원 기자 jjw13@

점유율 늘리고, 휴면카드 막자 카드업계, 계절 마케팅 총력전

위터파크 등 휴가 업종 할인 강화
하반기 수익 둔화면 혜택 축소 전망

카드업계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위터파크 등에서 할인 혜택을 잇달아 적용하고 있다. 휴가 및 피서에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상표가치 제고와 점유율 확대를 위한 정책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카드사들이 위터파크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한·KB국민·하나·비씨카드 등 4곳의 카드를 이용하면 위터파크 이용권에 30~50% 수준의 할인을 적용한다. 이 밖에도 카드업계 전반에 걸쳐 국내외 여행 업종에서 할인 혜택을 내세우면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카드사가 계절에 맞춘 행사를 진행하는 배경에는 상표가치 제고와 신관 잔액(M/S) 확대 때문이다.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업종과 가맹점은 추가 할인을 제공해서라도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신용카드 상품의 경우 소비자 한 명이 최대 4~5장까지 발급이 가능한 만큼 ‘휴면카드’로 전환을 막기 위해선 지속적인 소비 촉진 행사가 필요하다.

계절성 할인은 플랫폼 이용률을 높이는 유인책으로 활용한다. KB국민카드는 자사 플랫폼인 KB페이로 전월실적을 달성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상품 추천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카드는 디지리카페 내 별도 항목에서만 할인과 50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업계에서는 올해 여름특수 행사 강도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위터파크나 항공사, 호텔 등 대형 가맹점의 경우 매년 같은 시기에 협업이 이뤄진다. 특히 위터파크나 스키장의 경우 전월 실적과 무관하게 신용카드 혜택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카드사의 행사 규모는 줄어들 전망이다. 가맹



카드업계가 위터파크 할인혜택을 선보이며 소비촉진에 나섰다.
/뉴시스

점수수료를 인하 및 스트레스 증부채원 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에 카드론이 포함되면서 수익성 저하가 예고되면서다. 올해 카드사의 순이익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할 것이란 관측도 등장한다. 수익성이 나빠지는 만큼 마케팅에 투입할 수 있는 자금도 줄어드는 것이다.

그간 카드업계는 수익성 악화는 소비자 혜택 감소로 이어진다고 강조한 바 있다. 데이터 사업 등 새먹거리 발굴에 나서고 있고 매년 우상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맹점수수료와 카드론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익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통상 카드사는 마케팅 협업을 위해 제휴사와 3~4개월의 준비 기간을 가진다. 하반기 수익이 감소하면 겨울 특수가 시작되는 연말과 내년 초 소비자 혜택이 축소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신용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하나·우리·롯데·비씨카드)의 카드비용은 8조4203억원이다. 전년 동기(8조7259억원) 대비 3060억원 감소했다. 카드비용은 ▲모집비용 ▲제휴사지급수수료 ▲카드영업비용 등을 포함한다. 이중 마케팅에 활용하는 항목은 제휴사지급수수료다. 지난해 카드사 8곳의 제휴사지급수수료는 연간 19.4% 줄어든 9929억원으로 집계됐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삼성전자, 美 기업 ‘젤스’ 인수 의료기관 연계 헬스케어 키운다

SAMSUNG xhealth

갤럭시 스마트폰·워치 정보 통합
‘초개인화 헬스케어’ 전략 추진
향후 가전제품 연동 서비스 확대

삼성전자가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 ‘젤스’를 인수하고, 갤럭시 기반의 커넥티드 케어 서비스 확대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젤스와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연내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인수 금액은 계약에 따라 비공개다. 젤스는 2016년 미국 대형 병원 그룹인 프로비던스 헬스 시스템에서 분사해 설립된 기업으로, 병원과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젤스는 미국 내 500여 개 병원, 70여 개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업체와 파

트너십을 맺고 있다. 주요 파트너에는 프로비던스 헬스, 배너 헬스, 애드버케이트 헬스 등 미국의 대표적인 병원 그룹이 포함돼 있다.

젤스 플랫폼은 의료진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당뇨, 임신, 수술 회복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처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환자 측에서도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인수를 통해 헬스케어 기기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넘어 의료기관과의 데이터 연계를 강화한 본격적인 디지털 헬스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갤럭시 스마트폰과 워치, 링 등에서 수집되는 건강정보를 ‘삼성헬스’ 앱으로 통합하고, 이를 젤스 플랫폼과 연결해 병원 진료와 일상 건강관리를 하

의 흐름으로 묶는 것이 목표다.

특히 삼성전자는 질병 예방에 초점을 맞춘 ‘초개인화 헬스케어’ 전략을 추진한다.

기존의 단발성 건강 측정이 아닌,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헬스케어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가전제품과의 연동도 추진해 사용자 맞춤형 환경 제어 및 생활 패턴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까지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노태문 삼성전자 DX부문장 직무대행(사장)은 “삼성전자는 혁신 기술과 업계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사람들이 일상에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젤스의 폭넓은 헬스케어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더해 초개인화된 예방 중심 케어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GS칼텍스가 지난 4일 GS타워 본사에서 허세홍 대표이사 사장(왼쪽 두번째)을 포함한 회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생성형AI(GenAI) 교육을 진행했다. /GS칼텍스

GS칼텍스, 사내 생성형 AI ‘AIU’ 오픈

최소한 코딩 ‘AI 에이전트’ 개발

GS칼텍스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업무 전반에 도입하며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GS칼텍스는 사내 생성형 AI 통합 플랫폼 ‘AIU’를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

AIU는 AI와 油(기름 유)를 합친 단어로, 전통적인 정유 산업에 AI 기술을 접목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담은 이름이다.

GS칼텍스는 임직원들이 생성형 AI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AIU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임직원들은 회사 데이터와 전문지식을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에 업로드하지 않고도, 다양한 생성형 AI 도구를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AIU는 임직원들이 생성형 AI 기술과 회사 내부 데이터를 결합해 손쉽게 AI 에이전트(사람의 지시 없이도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지능형 디지털 도우미)를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AIU는 디지털 기술에 전문성이 없어도 최소한의 코딩으로 AI 에이전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노코드·로우코드 기반의 직관적인 개발 도구를 지원한다.

/차현정 기자 hyeon@



KGM 액티언 하이브리드.

/KGM



기아 더 뉴 쏘렌토 하이브리드.

/기아



르노 그랑 콜레오스 주행모습.

/르노코리아

액티언 가세... ‘중형SUV’ 춘추시대 열렸다

하이브리드 SUV ‘격돌’

중형 SUV 시장에서 좀처럼 힘을내지 못하고 있는 KG모빌리티(이하 KG M)이 액티언 하이브리드를 앞세워 시장공략에 나선다. 국내 자동차 시장은 하이브리드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특히 중형 SUV 시장은 하이브리드의 판매량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판매량 확대를 위해 가성비 경쟁까지 벌이는 모양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KGM은 듀얼 테크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세련된 스타일로 완성한 ‘액티언 하이브리드’를 이날 본격 출시하고 판매에 돌입했다.

KGM의 두 번째 하이브리드 모델 ‘액티언 하이브리드’는 국내 하이브리드 모델 중 전기차에 가장 가까운 주행 퍼포먼스와 연비 효율을 갖춘 도심형 SUV다. 선호도가 높은 첨단 안전 편의 사양을 기본화하고도 3600만원의 단일 트림으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사양은 프리미엄 모델과 견줘도 손색이 없다. 세련된 쿠페형 실루엣에, 직렬형 듀얼모터 기반의 ‘듀얼 테크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했다. 도심 전기주행 비율은 무려 94%, 복합 연비는 15km/L에 달한다. 그동안 액티

KG모빌리티 ‘액티언 하이브리드’ 편의사양 기본 3600만원 단일트림

지난해 현대차 싼타페 판매량 72%
기아 쏘렌토 판매 72% ‘하이브리드’

스텔란티스코리아 ‘완전변경’ 푸조
BMW, 7년 만에 ‘신형 X3’ 선보여

언은 하이브리드 라인업 부재로 지난해 4909대, 올해 상반기 1864대 판매에 그쳤다. 반면 경쟁 차종인 르노코리아의 그랑 콜레오스는 하이브리드 라인업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2만524대, 올해 상반기 1만9605대를 판매량을 기록했다.

현대차 싼타페와 기아 쏘렌토와 경쟁도 예고하고 있다. 현대차 싼타페는 지난해 7만8609대 중 하이브리드 모델이 72.3%를 차지했으며 기아 쏘렌토는 지난해 9만5040대 중 71.6%가 하이브리드였다.

KGM 관계자는 “액티언 하이브리드는 세련된 디자인, 탁월한 연비, 승차감 등 부드러움과 강인함을 동시에 갖춘 모델”이라며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SUV를 찾는 고객들에게 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입차 업체들도 국내 하이브리드 시장 공략을 위한 차량을 투입하고

있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8년 만에 완전 변경된 푸조의 도심형 SUV ‘올 뉴 3008 스마트하이브리드’를 최근 출시했다. 3세대 모델은 가솔린·디젤 엔진이 탑재된 기존 1·2세대와는 달리 스마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됐다. 도심 환경에서 전체 주행 시간의 약 50%를 전기로 주행 가능하며 복합기준 연비는 14.6km/L를 달성했다. 특히 가격은 4490만~4990만원대로 8년전 국내 출시 가격 그대로다.

BMW는 7년 만에 완전 변경된 신형 X3를 출시하며 강렬한 디자인과 첨단 인테리어, 그리고 최신 한국형 내비게이션 등 디지털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강력한 성능, 동급 최고 수준의 연비로 ‘운전의 즐거움’과 실용성을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이다. 도요타와 렉서스는 하이브리드 SUV 라브4와 NX 350h로 국내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가 다양한 외부 악재로 일시적 수요 정체에 빠진 상황에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확보한 하이브리드 수요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며 “향후 하이브리드 SUV 시장은 디자인, 성능, 브랜드 경쟁력을 갖춘 모델을 중심으로 인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기아, 준중형 전기SUV ‘더 기아 EV5’ 공개

다섯 번째 전기차... 하반기 출시

기아는 8일 준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더 기아 EV5’의 내·외장 디자인을 공개했다.

EV5는 EV6, EV9, EV3, EV4에 이어 기아의 다섯 번째 전용 전기차로 준중형급 정통 SUV 바디타입을 적용했다. EV5의 전면부에선 넓은 스킵드 플레이트(하부 보호판)와 보닛이 강인한 인상을 주고 측면부에선 여유로운 내부 공간감과 트렁크 공간을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

19인치 휠에는 기하학적인 다이아몬드 커팅 조형이 적용됐고 사각 펜더(바퀴 덮개)가 어우러졌다. 후면부에는 콤팩트 램프가 수직, 수평으로 길게 뻗어있고 범퍼가 차체 전반을 안정감 있게 받쳐준다.

실내에는 12.3인치 클러스터,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디스플레이, 5인치 공조 디스플레이를 묶은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됐다.

1열은 넉넉한 콘솔 수납공간이 마련됐고 2열엔 콘솔 슬라이딩 트레이가 장착됐다. 운전석, 조수석, 2열의 독립적인 냉난방 제어도 가능하다. 2열 시트는 앞으로 접었을 때 수평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야의 활동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기아 관계자는 “EV5는 전동화 기술의 혁신과 실용성이 조화를 이루며 국내 EV 대중화 시대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모델”이라며 “넓은 공간감과 81.4kWh(킬로와트시) 용량의 삼원계(NCM) 배터리 탑재를 통해 보다 넉넉한 주행거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삼성전자, 폴더블폰에 ‘원 UI 8’ 첫 탑재

암호화 스토리지 등 새롭게 도입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모바일 보안을 대폭 강화한다. 신제품 폴더블폰에 차세대 운영체제 ‘원(One) UI 8’을 처음 탑재하고, 암호화 스토리지, 기기 간 위협 차단, 양자 내성 암호 기술 등을 새롭게 도입했다.

삼성전자는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공개하는 폴더블폰 신제품 갤럭시Z플립7·폴드7에 차세대 운영체제 ‘원(One) UI 8’ 정식 버전을 탑재한다고 8일 밝혔다.

원 UI 8의 핵심은 ‘개인정보 보호’다. 삼성은 새로운 보안 기능인 ‘킵(KEEP)’을 도입했다. 킵은 갤럭시 AI가 기기 내에서 학습한 데이터를 외부 앱이나 서버와 완전히 분리해, 민감 정보가 다른 곳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 기능은 삼성 보안 플랫폼인 ‘녹스볼트’ 기반으로 작동한다. 앱마다 암호화된 저장 공간을 따로 만들고, AI 기능이 개인 데이터를 학습하더라도 외부 접근을 원천 차단한다. 사용자의 일상, 선호도 등 민감 정보는 기기 안에서만 관리된다.

/이혜민 기자

한일홀딩스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시멘트 소성 설비 등 친환경 분야 5276억 투입

친환경 지속가능경영 집중
소성 공정 순환연료 비중 확대
“온실가스 감축 지속해 나갈 것”

한일이 오는 2027년까지 시멘트 친환경 설비 등에 총 5276억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시멘트 제조 핵심인 소성 설비 개조 프로젝트에만 3687억원을 쏟는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등 친환경 지속가능 경영에 더욱 집중한다.

8일 한일홀딩스가 발간한 ‘한일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그룹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679만2315이산화탄소환산톤(tCO₂-eq)에 이른다. 이 가운데 시멘트 사업에서만 전체의 98%가 넘는 667만3691tCO₂-eq를 배출했다.

시멘트 등 건설자재, 건설, 상사, 투자, 레저 부문에 걸쳐 9개 계열사로 이뤄진 한일그룹은 현재 시멘트 계열사로 한일시멘트와 한일현대시멘트가 있다.

이 가운데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한일시멘트가 전년보다 16.1% 감소



한일홀딩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H Way’ 표지

/한일홀딩스

한 366만8271tCO₂-eq, 한일현대시멘트는 7.6% 늘어난 312만4044tCO₂-eq를 각각 기록했다. 한일현대시멘트의 경우 시멘트 생산량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작년에 늘었지만 클링커 생산 단위 톤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었다는게 회사측 설명이다.

회사는 앞서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5호 소성로(2023년 3월), 한일현대시멘트 영월공장 2호 소성로(2024년 1월)에 대한 설비 개조를 끝냈다. 또 폐프라스틱, 칩타이어 등 순환연료 투입량을 높이기위해 새틀라이트 버너(Satellite Burner) 투입 시스템도

설치했다.

에너지 효율 증대 등을 위해 고온의 클링커 온도를 낮추는 냉각기도 ‘5세대 최신 쿨러’로 교체할 예정이다.

이렇게하면 기존에 65% 수준이던 열 회수율을 70~80%까지 높일 수 있어 소성로 배출온도를 250℃에서 100℃로 낮추는 것 뿐만 아니라 고온의 클링커가 시멘트 분쇄기 성능을 저하시키는 것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회사 관계자는 “소성로 설비 개조로 유연탄 사용량을 3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를 통해 연간 약 3만6000t의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

〈2027년까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은 유연탄과 같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순환연료 비중도 점차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2022년 당시 32% 수준이었던 소성 공정에서의 순환연료 에너지 기여율을 올해 45%까지 올리는게 목표다.

한일시멘트와한일현대시멘트는 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CCUS 국책과제에 참여하는 동시에 중장기 관점에서 전략 수립 및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2022년 CCUS 프로젝트팀을 꾸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30년께면 CCUS 기술이 상용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근식한일시멘트·한일현대시멘트 대표는 “기후변화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기업의 생존과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면서 “소성로 개조, 폐열 발전 설비 신설 등 ‘ECO 프로젝트’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친환경 설비투자는 한일이 추진해 온 저탄소 전환 노력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연료 전환, 폐열 회수, 폐자원 순환활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화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한화오션

찰스 드류함 MRO 수주

한화오션이 미국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또 한 번 수주했다. 지난해 8월과 11월에 이어 세 번째 수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력 요청 이후 수주가 계속되고 있다.

8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이달 초 미 해군 7함대 소속 보급함인 찰스 드류(Charles Drew)함의 정기 수리 사업을 수주했다.

찰스 드류함은 화물과 탄약 등을 보급하는 비전투함으로, 배수량 4만1000톤(t), 길이 약 210m, 선평 32m의 대형 선박이다. 이는 한화오션이 앞서 수주했던 월리 쉬라(Wally Schirra)함과 동급의 규모로, 계약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백억원으로 보인다. 찰스 드류함은 7월 중순에 입항해, 4분기 수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



귀뚜라미 ‘따숨케어’ 렌탈 서비스

귀뚜라미가 현대렌탈케어의 현대큐밍을 통해 가정용 보일러 렌탈 서비스 ‘따숨케어’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따숨케어’는 귀뚜라미의 고효율 친환경 보일러를 초기 구매 비용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합리적 가격에 제공한다. 또한, 현대렌탈케어 제휴 신용카드로 렌탈요금 자동납부를 할 경우 전월 사용실적에 따라 최대 월 2만5000원까지 렌탈요금을 할인해준다.

아울러 ▲5년 무상 A/S 제공 ▲연 1회 정기 성능 점검 ▲24시간 이내 고장 대응 등 차별화한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깨끗한나라 ‘보솜이’ ‘리얼코튼 오가닉’ 출시

깨끗한나라가 피부자극을 최소화한 프리미엄 기저귀 ‘보솜이 리얼코튼 오가닉’를 새롭게 출시하며 지마켓 단독 판매를 시작한다.

생활 혁신 솔루션 기업 깨끗한나라가 영유아 케어 브랜드 보솜이의 신제품 ‘리얼코튼 오가닉 기저귀’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오는 11일부터 지마켓을 통해 단독 선출시되며, ‘슈퍼브랜드 데이’를 맞아 20%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보솜이 리얼코튼 오가닉 기저귀’는 민감한 아기 피부를 고려해 고급 원사와 유기농 자재를 적용한 프리미엄 제품이다.

피부에 닿는 안감에는 머리카락 굵기 6분의 1 수준인 1.2데니아 원사를 사용해 부드러운 착용감을 높였으며, 유기농 순면과 시어버터 추출물을 함유해 피부 자극을 최소화했다. /최빛나 기자

여성기업, 구조적 장벽 여전... 성장 중심 정책전환 필요

자금조달 등 고도화 단계에서 한계
“스케일업, 시장 진입기반 마련 절실”

여성 창업기업의 경영 안정성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고도화 단계에 진입한 여성 창업자들은 자금 조달, 수익성, 네트워크 연결 등에서 여전히 구조적 한계를 겪고 있다. 실태조사 수치에서도 이 같은 현장의 애로사항은 고스란히 드러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에서 바이오 소재 스타트업업을 운영 중인 김모 대표는 창업 3년 차에도 자금 유치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매출은 늘었지만, 투자 얘기만 나오면 문턱이 너무 높다”며 “제품 설명보다 창업자의 이미지나 외적 요소에 대한 질문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여성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기업 31.7%는 자금 지원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고, 실제로 90.8%는 정부의



박창숙 여성경제인협회장(왼쪽 첫번째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 김성섭 중소기업부 차관이 열쇠를 꽂는 퍼포먼스를 마친 뒤 손뼉치고 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자금 지원이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그러나 수익성과 활동성을 나타내는 순이익률(3.5%)과 자기자본 회전율(1.5회)은 모두 전년 대비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여성기업 50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부채비율은 123.1%로 전년보다 12.1%포인트 감소했고, 1인당 매출도 2080만원으로 소폭 늘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기초 체력은 올라왔지만, 고도화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은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김모 교수는 “여성 창업기업이 기술력과 안정성을 확보해도 시장 접근이나 스케일업 투자 유치에서는 여전히 불리한 구조에 있다”며 “성장 구조 자체가 성별에 따라 차등 작동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여성벤처협회는 하반기부터 산업별 전문가와 여성 CEO 간 1:1 매칭 방식의 ‘W-멘토링 랩’을 확대하고, 실질적 조언이 가능한 구조를 마련한다는 계

중기부, 중소기업 ‘제3자 승계’ 돕는다

“특별법 제정 등 정책적 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부가 자녀 등 후계자가 아닌 중소기업들의 인수합병(M&A)을 통한 제3자 승계를 돕기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다. 관련 지원 인프라 구축도 더욱 강화한다.

8일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후계자가

아닌 고령의 최고경영자(CEO)가 M&A를 통해 제3자 기업승계에 성공한 사례가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다.

중기부와 기보에 따르면 지난달 M&A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승계형 M&A 2건이 성사됐다. 두 기업은 M&A를 통해 오랜 기간 축적한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인계하는 동시에 종업원에 대한

고용 안정성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이 과정에서 기보는 M&A 피인수 기업과 인수희망 기업의 경영진 면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M&A 컨설팅을 제공했고, 인수 자금을 대한 보증지원으로 M&A 성사를 뒷받침했다.

앞서 중기부는 올해 1월부터 기술보증기금 내에 ‘M&A지원센터’를 설치해 일반 M&A 지원 뿐만 아니라 자녀 승계가 어려운 고령의 대표들에게 M&A를 통한 제3자 기업승계를 돕고 있

다. 이를 위해 ▲M&A 거래정보망 운영 ▲중개지원 ▲M&A 파트너스네트워크 구축 ▲M&A 보증 ▲기술보호(TRS 등) 등 원활한 제3자 기업승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기부 김정주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자녀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이 M&A를 통한 제3자 기업승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과 지원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NARA CELLAR

역시! 몬테스

결국! 몬테스



2025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와인 부문 2년 연속 1위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서울리전 통해 ‘소버린 클라우드’ 포괄적 선택권 제공”

구글 클라우드 데이 서울 2025

AI 연산작업 수행 지원 옵션 발표
7세대 텐서 처리장치 ‘아이언우드’
높은 에너지 효율·연산 성능 갖춰
“AI, 스스로 해석·인사이트 제공”

구글 클라우드가 국내에서 데이터 저장장은 물론 머신러닝(ML) 연산까지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 레지던시 옵션을 공개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라 데이터 주권과 관련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자로서 한발 앞선 대응에 나선 것이라 분석이다.

8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구글 클라우드 데이 서울 2025’에서 구글은 서울 리전을 기반으로 AI 연산 작업까지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 옵션을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데이터 저장 위치 제어를 넘어, 머신러닝 처리 작업의 물리적 수행 위치까지 국내로 제한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기성 구글클라우드코리아 사장은 “구글클라우드에는 모델, 하드웨어, 그리



지기성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 사장이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구글 클라우드 데이 서울’에서 발표하고 있다. /구글 클라우드

고 개방성과 상호운용성을 갖춘 플랫폼 도구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산업 전반에 걸쳐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리전은 2020년 개설된 이후 고 대역폭과 낮은 레이턴시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품질로 운영되고 있다. 전 세계 200개 국가와 지역을 연결하는 구글의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되

며, 지상 및 해저에 걸쳐 구축된 200만 마일 규모의 광케이블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다.

이번에 공개된 신규 옵션은 특히 최신 거대언어모델(LLM)인 ‘제미니 2.5 플래시’를 포함한 생성형 AI 기능을 국내에서 실행해야 하는 기업들의 규제 준수 니즈를 반영한 것이다. 구글 측은 “속도와 성능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통제하고 운영하는 위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라며 “서울 리전을 통해 고객에게 소버린 클라우드에

대한 포괄적인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AI 연산 인프라와 관련해서도 구글은 자체 개발한 7세대 텐서 처리 장치(TPU) ‘아이언우드’를 소개했다. 아이언우드는 대규모 AI 추론을 위해 설계된 최초의 TPU 가속기로, 높은 에너지 효율과 연산 성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지기성 사장은 “아이언우드의 등장은 추론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며 “이제 AI는 사람이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 해석하고 선제적으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통합 AI 개발 플랫폼 ‘버텍스(Vertex) AI’를 통해 텍스트, 이미지, 코드, 음성 등 다양한 형식의 입력을 기반으로 생성형 AI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도 구글 답마인드의 AI 연구 성과를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

이날 현장에는 구글클라우드와 협업 중인 국내 AI 스타트업들도 함께 했다. 뤼튼테크놀로지스는 최근 AI 검색, 생산성 도구, 개인화 기능을 강화한 ‘뤼튼 3.0’을 출시하며 제미니 2.5 모델군을 주요 기반으로 도입했다.

유영준 뤼튼 COO는 “새로운 서비스에 쓰일 LLM은 좋은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 높은 안정성 등 여러 기준을 만족해야 했다”며 “제미니는 자체 테스트에서 그 기준을 충족했고, 현재 다양한 LLM들과 함께 적재적소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글클라우드의 버텍스 AI를 통해 빠른 처리속도를 확보했고, 가성비 또한 만족스럽다”며 “사용자 취향에 맞춘 다양한 LLM을 조합하면서 제미니의 반응이 특히 좋았다”고 덧붙였다.

코엑스 행사장 내 AI 체험 공간인 ‘제미니 플레이그라운드’에서는 LG유플러스, NC AI, 카카오모빌리티 등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적용한 사례를 선보였다.

LG유플러스는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와 통화 요약 기능을 제공하는 AI 통화 앱을 소개했으며, NC는 다국어 AI 보이스 서비스와 패션 특화 이미지 생성 툴, AI 번역 기술 등을 전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제미니 기반 주소 자동 붙여넣기 기능을 통해 실사용 효율성을 강조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LG U+, 올해 정보보호 투자 30% 늘린다

〈전년비〉

‘정보보호백서 2024’ 발간
전문인력 157명 → 293명 확대
정보보호 자문위원회 활동도 정리

LG유플러스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보안 관련 활동과 성과를 정리한 ‘정보보호백서 2024’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발간이다.

백서에는 LG유플러스의 보안 조직 체계와 운영 구조가 포함됐다. 정보보안센터는 CEO 직속 조직으로, CISO/CPO(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전사 정보보호를 총괄한다. 산하에는 정보보안 기술담당과 개인정보보호담당이 각각 보안 기술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 기준 수립 및 관리를 맡는다.

보안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투자와 인력 확충 내용도 담겼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정보보호 분야에 약 828억원을 투입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96억



LG유플러스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사적인 보안 역량 강화 노력을 담은 ‘정보보호백서 2024’를 발간했다. /LG유플러스

원 증가한 규모다. 올해는 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3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정보보호 전담 인력도 전년 157명에서 올해 293명으로 확대됐다.

내부 보안 포털 재구축,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점검 시스템 구축, AI 기반 보안 모니터링 기능 강화 등의 시스템

개선 사례가 소개됐다. 또한 프라이버시센터 개소, 해킹대회 개최, 버그바운티 운영 등 대외 활동도 포함됐다.

스팸, 스미싱,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고객피해방지 분석 시스템 운영과 서울경찰청과의 공조 체계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 LG유플러스는 숭실대학교와 협력해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인 정보보호학과를 신설하고 보안 인재 양성에 나섰다고 밝혔다.

법조계, 산업계,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보호 자문위원회 활동도 정리됐다. 자문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통해 LG유플러스의 보안 추진 방향과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있다.

백서에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 도입을 위한 로드맵도 포함됐다. LG유플러스는 단말 보안 강화, 접근제어 모델 정립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 보안 체계 개선 과제를 수립하고 추진 중이다.

/김서현 기자



지난 5일 개최한 걸스 캔 두 IT 해커톤에서 참가 학생들이 심사위원단에게 레고 블록으로 만든 작품을 시연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희경 CJ사회공헌추진단장, 송창훈 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유인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이사. /CJ올리브네트웍스

CJ올리브네트웍스, ‘걸스 캔 두 IT’ 성료

여중생 디지털 진로탐색 기회 제공

여중생들이 직접 생활 속 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IT 기술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특별한 해커톤이 열렸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CJ-유네스코(UNESCO) 소녀교육 캠페인과 연계한 해커톤 프로그램 ‘걸스 캔 두 IT’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걸스 캔 두 IT는 여중생을 대상으로 정보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디지털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

부터 진행해온 프로그램이다. 올해에는 CJ나눔재단의 지원을 받은 수도권 소재 지역아동센터 소속 여중생들이 참여했다. 참가학생들은 본 행사에 앞서 6월 한 달간 총 16시간에 걸쳐 레고(LEGO)를 활용한 STEAM(과학·기술·공학·예술·수학) 기반의 융합 교육을 이수하며,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역량을 키웠다.

지난 5일 CJ 인재원에서 열린 해커톤 결선에서 학생들은 직접 발굴한 주제에 대한 창의적인 IT 아이디어와 레고를 활용한 결과물을 발표했다. /김현정 기자

네이버 ‘치지직’, 3년간 ‘이스포츠 월드컵’ 독점 중계

내달 24일까지 열려

네이버의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이 올해부터 3년간 글로벌 e스포츠 대회 ‘이스포츠 월드컵(EWC)’의 한국어 독점 중계권을 확보하고, 개막일인 8일부터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EWC는 이스포츠 월드컵 파운데이션이 주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e스포츠 대회로, 이날부터 내달 24일까지 총 48일간 열린다. 총상금 규모는 7000만

달러(약 1000억원) 이상으로, 전체 24개 게임으로 진행되는 25개의 경기 결과를 종합해 가장 높은 포인트를 기록한 팀이 ‘클럽 챔피언’ 타이틀을 차지하게 된다.

네이버 치지직은 이번 대회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그라운드 ▲발로란트 등 국내 e스포츠 팬들의 시청 수요가 높은 14개 종목의 경기를 생중계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올해는 T1, 젠지, 한화생명, DRX, 농심 등 국내 최정상급 프로팀들이 출전하는 만큼 깊이 있

는 해설을 위해 전문 중계진을 섭외하고 인플루언서 ‘미미미누’와 치지직 인기 스트리머들을 사우디 현장에 파견한다”며 “대회의 열기와 분위기를 몰입감 있게 전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네이버 치지직은 EWC의 한국어 독점 중계권을 확보해 e스포츠 팬들에게 몰입도 높은 시청 경험을 제공하고, 대회를 더욱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종합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hjk1@

KT, 지니TV에 ‘말이 통하는 AI’ 구현

음성명령 넘어 자연스러운 대화 가능

KT는 자사 IPTV 서비스 ‘지니TV’에 초거대 언어모델(LLM) 기반의 대화형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탑재했다고 8일 밝혔다.

기존의 단순 음성 명령 인식을 넘어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말이 통하는 AI’를 구현했다는 설명이다. 지니T

V AI 에이전트는 뉴스나 날씨 등 생활 정보는 물론, 시사·교양·과학·인물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한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간단한 설명이나 줄거리만으로도 원하는 콘텐츠를 찾아준다.

KT는 2017년 AI 스피커 ‘기가지니’ 출시를 통해 기술을 축적, 음성 인식을 95% 이상으로 높이고 실시간 검색 기능도 연동했다. /김서현 기자

회사채 수요예측 건수 급감… 신용 리스크·구조적 불안 영향

이달 13건 전망… 전년 절반 수준
금리인하 기대 무너지며 매력 감소
시장선 자금시장 구조적 전환 분석

기업자금조달창구인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무너지며 자금조달 매력도가 낮아졌고, 경기 둔화와 업황 악화로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잇따르면서 조달 시장의 경계심이 한층 짙어졌다. 선제 발행을 마친 기업들은 자금 조달을 멈추거나 유상증자 등 대체 수단을 찾는 분위기다. 자금시장 위축은 단순한 심리 요인을 넘어 수치로도 드러나고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3일까지 회사채 수요예측에 나선 기업은 넥센타이어, 한화리츠, 울산GPS, 신한투자증권 등 4곳에 불과했다. 8~22일 사이에도 HD현대, CJ CGV, NH투자증권 등 9곳만이 수요예측을 계획하고 있어, 이달 전체 수요예측 건수는 13건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27건) 대비 절반 수준



ChatGPT에 의해 생성된 '회사채 시장' 이미지

이다.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일반회사채 발행 규모는 지난달 2조1500억원으로, 4월 대비 75.8% 급감했다. 운영목적 발행은 5.6%에 그쳤고, 차환목적 비중은 90%에 육박했다. 자금조달이 줄어들 것을 넘어 '필수적일 때만 한다'는 기업 심리가 확인된 셈이다. 단기사채(CP)와 기업어음 발행도 동반 위축됐

다. 지난달 CP 발행은 전월 대비 4.8%, 단기사채는 6.9% 각각 감소했다.

시장에서는 금리 자체보다 신용 리스크와 구조적 불안이 자금시장 위축의 직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성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부터 정기 신용평정 마무리를 앞두고 비우호적인 업황 중심으로 신용등급 하

향 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봤다.

한편, 일부 기업은 유상증자나 주식 발행으로 우회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삼성SDI는 6월에만 1조6549억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했고, 이 영향으로 전체 주식 발행은 전월 대비 386% 급증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도 "증권사들도 우량 기업에 대한 '선별 인수'가 심화되며, 신용등급에 따른 자금 조달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며 "특히 흠플러스 건이 터진 이후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BBB급 이하 회사채에 대한 회피 심리가 뚜렷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전에는 금리만 보고 들어오던 리테일 수요가 있었다면 이제는 발행사의 신용등급을 따지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의미다.

이번 흐름은 단기적인 조정이라기보다는 자금시장 전반의 심리 변화로 읽힌다. 기준금리 인하 지연, 확장재정 우선, 신용등급 하향 기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업과 투자자 모두 방어적 태세로 전환한 모습이다.

시장 일각에서는 당분간 위축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통상 7월은 휴가철과 반기보고서 제출 시기가 겹쳐 채권 발행이 줄어드는 시기인데, 올해는 그 전통적인 비수기 요인이 금리·신용 변수와 맞물리며 더 부각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회사채 위축 흐름이 단순한 계절적 조정이 아니라, 자금시장 심리의 구조적 전환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남아 있지만, 부동산·가계부채 등 금융불안 요인이 커지면서 정책 우선순위가 '성장'보다 '안정'에 가까워졌다는 해석이다.

한국은행은 5월 기준금리를 2.50%로 낮추며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에 따라 금융안정 우선 기조가 강화되는 모습이다.

금리 정책이 아직 방향을 정하지 못한 사이, 자금시장에서는 이미 기업과 투자자가 먼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증권사, '삼천피' 날개… 연간실적 전망 好好

위탁매매, 트레이딩 등 수익 개선
빅5, 10%대 영업이익 증가 전망

국내 '빅5' 증권사들이 올해 'A'학점의 영업 성적표를 받아들 전망이다. 삼천피(코스피지수 3000) 시대가 열리면서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익이 늘어난 영향이다. 금리 하락과 글로벌 증시 투자 확대 등으로 트레이딩 이익도 크게 늘었다.

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국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등 '빅5' 증권사의 올해 평균 영업이익 전망치는 1조2331억원이다. 지난해(1조1186억원)보다 10.24% 증가한 것이다.

개별 증권사별로 보면 한국투자증권을 자회사로 둔 한국금융지주의 올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6.6% 증가한 1조519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

다.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은 각각 전년 대비 5.6%, 1.0% 늘어난 1조2540억원, 1조2174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됐다. 키움증권과 NH투자증권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각각 1조1595억원, 1조152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6%, 12.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증시 강세가 실적 개선을 이끄는 주요 배경으로 지목된다. 최근 코스피가 3000선을 회복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면서 거래대금이 크게 늘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7월 코스피 거래대금은 4거래일 만에 68조6740억원을 찍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이번 달 거래대금은 400조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코스피 거래대금은 지난 5월 169조6835억원에서 코스피 지수 3000을 찍은 6월엔 288조7960억원까지 불어났다.

주식 매매를 위해 고객이 증권사에

미리 입금해 두는 돈인 고객예탁금도 꾸준히 늘고 있다. 4월 기준 고객예탁금은 65조3840억원이다. 지난 1월에는 70조4133억원을 기록했다.

장영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를 합산한 일평균 거래대금이 5월 20조5000억원에서 6월 33조원으로 급증했다"며 "3분기에는 23조2000억원, 4분기에는 23조8000억원으로 예상돼 기존 전망치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법 개정안 통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 등으로 증시 부양정책이 구체화되면서 하반기에도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금리 하락에 따른 조달금리 인하, 채권평가이익 발생, 해외주식 위탁매매 증가, 기업금융(IB) 부문 실적 확대 등도 수익성을 끌어올릴 전망이다.

/원관희 기자 wkh@

흔들리는 테슬라… 투자전략 엇갈려

해외주식 Click

서학개미, 'TSL·TSLY' 순매수

테슬라 주가가 최근 약세를 보이자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전략도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가반등을 노리고 테슬라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에 공격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한편 옵션 매도로 매달 분배금을 받는 인컴형 ETF를 통해 추가 하락 위험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주(7월 1~7일)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해외 종목은 '디렉시온 테일리 테슬라 볼 2배 ETF(TSL·TSLY)'였다. 순매수 규모는 2억5050만달러에 달했다. TSL·TSLY는 테슬라의 하루 주가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이다.

테슬라 주가는 로보택시 출시 다음날인 지난달 23일 8.2% 급등했다가 곧바

로 6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지난 1일에는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갈등이 재점화하며 5.34% 급락했다. 이런 급락세에도 일부 투자자들은 주가가 단기에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며 TSL·TSLY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서학개미들은 테슬라의 수익률을 따르면서 콜옵션 매도로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일드맥스 테슬라 인컴 스트래티지 ETF(TSL·TSLY)'도 1143만달러어치 순매수했다. 테슬라 주가가 최근 급락하자 이를 저가매수 기회로 삼으면서도 추가 하락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TSLY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TSLY는 매월 옵션 매도 프리미엄을 활용해 분배금을 지급하는 전략으로, 하락장에서 손실을 일부 완화할 수 있는 반면 상승장에서 수익은 제한된다.

한편 테슬라 주가는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리스크와 글로벌 판매 부진으로 인해 300달러 안팎에서 출렁이고 있다.

/원관희 기자

키움증권-국민은행, 전략적 업무협약… 환전 등 서비스 협력

외화 예수금 현찰 인출 서비스 예고

키움증권은 국민은행과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두 회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양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결합해 기존에 없던 고객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외환 분야에서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키움증권은 KB국민은행과 함께 일반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증권사 최초로 외화 예수금을 현찰로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 '달러찾기'



엄주성(왼쪽) 키움증권 대표와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사에서 업무 협약식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키움증권

를 이달 중순 내놓는다.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 국민은행의 외화 취급 일반영

업점 어디서나 외화를 인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항 지점의 경우 추가 협의가 필요한 만큼 추후 확장할 방침이다.

키움증권과 KB국민은행은 이번 외화 현찰 지급 서비스를 시작으로 트래블러스카드, 해외 송금 등 다양한 환전 수요를 겨냥한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객들은 투자뿐만 아니라 환전까지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성을 최우선에 두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삼성증권, 유엔대용신탁 브랜드 론칭

'헤리티지' 출시… 모둠허 구조 채택

삼성증권은 유엔대용신탁 브랜드로 '삼성증권 헤리티지'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삼성증권의 유엔대용신탁은 고객의 자산 구성에 따라 개별 맞춤형 계약이 병행되는 모둠허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금전 자산은 머니마켓 트러스트(MMT), 부동산은 '부동산관리 신탁', 채권은 채권형 신탁 등 자산별 별도 신탁계약이 구성돼 고객이 원하는 방식대로 관

리 및 운용된다. 상속인 지정, 상속 비율, 지급 시기와 조건까지 직접 설계할 수 있다.

삼성증권 유엔대용신탁은 단지 가족 간 자산 승계를 넘어, 고객의 뜻을 사회에 남기는 '기부신탁'도 갖추고 있다. 고객은 생전 신탁 계약을 통해 특정 병원, 대학, 비정부기구(NGO) 등을 사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금전 신탁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생전 세액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원관희 기자

부산서 에너지 국제행사 동시다발 재생에너지·AI 연계 미래비전 제시

산업부, ‘에너지슈퍼 워크’ 설명회
AI 활용한 에너지 혁신·전환 논의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목표 설정
글로벌 기업들 최신기술 전시 예정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주한 외국대사관을 대상으로 이른바 ‘에너지슈퍼 워크’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 등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슈퍼워크란 다음 달 하순 부산에서 예정돼 있는 4개의 에너지 관련 국제행사를 가리킨다.

이날 설명회에는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영국, 베트남, 일본 등 주한 외국대사관 43곳이 참석했다.

에너지슈퍼워크 기간에는 제15차 APEC 에너지장관회의(8월 27~28일)을 비롯해 제16차 청정에너지장관회의(8월 25~27일), 제10차 미션이노베이션장관회의(8월 25~27일) 등 3개 에너지장관회의가 개최된다. 또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8월 27~29일)가 동시에 열린다.

이 기간 약 40개 회원국의 에너지장관 및 정부대표단과 국제에너지기구(IEA),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 주요 인사 및 글로벌 기업 등이 참여해 미래 에너지 방향을 함께 논의하게 된다.

APEC 에너지장관회의는 부산과 라다이스 호텔 및 누리마루에서 개최된다. 전력망 인프라·에너지 안보 강화, 안정적인 전력공급, AI 활용 에너지 혁신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청정 및 미션이노베이션 에너지장



최태원(앞줄 왼쪽부터) 대한상의 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희성 CF연합 회장이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7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관회의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효율, 전력전환, 미래연료(수소), 에너지와 AI, 탄소저감 기술 등이 의제로 오를 예정이다.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는 부산 벡스코에서 국제에너지기구·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국내에선 기후 및 에너지 분야 관련 약 10개 정부부처가 함께 준비하고 있다. 산업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기상청, 산림청,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부산광역시 등이다.

올해 박람회에는 파티 비를 IEA 사무총장과 마누엘라 페로 월드뱅크 부총재의 축사와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다. 글로벌리더십, 에너지, 인공지능(AI), 기후 3개 서밋에서 12개 컨퍼런스가 진행된다. 또 삼성, LG, 두산에너지

빌리티, 한화큐셀 등 주요 글로벌 기업이 최신·미래 기술도 풍성하게 전시할 계획이다. 채용설명회, 수출상담회 등의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조익노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주한 외국대사관 설명회에서 “대한민국 새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다”며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구축, 에너지-AI 연계 등을 통해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에너지슈퍼워크는 에너지장관회의와 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 연계돼, 약 40개국 장관급 인사와 글로벌 기업이 참가하는 세계적인 행사인 만큼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농협, 농산물 해외판로 확대 나선다

수출현장서포터사업 본격 가동

농협 경제지주가 ‘2025년 수출현장서포터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수출현장서포터사업은 농협경제지주가 농산물 및 농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시장개척 ▲수출상품화 ▲해외인증취득 등을 지원하는 ‘수출농협 맞춤형지원’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경북 영주 풍기농협에서는 수출상담이 진행됐다. 풍기농협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 농산물 공판장을 중심으로 연 400억 원 이상의 내수시장 매출을 올리는 사업장으로, 수출로 사업범위를 확장하고자 이번 수출현장서포터사업에 참여했다.

풍기농협의 수출품목은 복숭아로,

해마다 반복되는 국내 복숭아 가격 하락에 대비해 추가적인 판로를 마련하고자 수출 길을 찾아 나서게 됐다. 풍기농협 관계자는 “수출 경험이 없다보니 해외 시장 개척 방법을 몰라 막막했다”며 “상담을 통해 수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수출을 희망하는 지역농협이 겪는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우리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농협경제지주는 수출을 희망하는 지역농협의 신청을 받아, 현장 상담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협의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산업 확대방안 모색

산업부, 외투 유치·지역 특화 강화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부산 명지국제도시에서 ‘2025년 경제자유구역의 날’ 행사를 열고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첨단산업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무 유공자 18명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

경제자유구역의 날 행사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된 2003년 7월1일을 기념해 지난해 인천 송도에서 처음 열렸고 올해는 부산에서 2번째 행사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산업부 9개 경제자유구역청 임직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등 유관기관을 포함해 120여 명이 참석

했다.

행사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업무 유공자 18명에 대한 포상을 비롯해 ▲경제자유구역법 실무강의와 타 특구 개발 사례 등 실무교육 ▲부산신항,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등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시설 및 입주기업에 대한 현장방문이 실시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정부의 경제회복 노력에 경제자유구역도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역별 여건을 감안해 수도권은 외국인투자 중심, 지방은 첨단산업 유치를 통해 지역개발의 거점으로 차별화하는 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국서부발전

여름철 발전설비 점검

전력수급 안정 대책 화상회의

한국서부발전이 전력수요 급증 기간에 대비해 전력공급 안정을 위한 대책회의와 발전설비 집중 점검에 나섰다.

서부발전은 8일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 대책 화상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 여름 전력 수급 대책기간은 14일부터 오는 9월 19일까지 68일 간이다.

이 기간 최대 전력수요 전망치는 94.1~97.8기가와트(GW)로 지난해 8월 20일 기록된 역대 최대치인 97.1GW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전력수급 비상 상황 보고·긴급 대응 복구 체계·연료 확보 상황·풍수해 대비 취약설비 보강·관리 방안 등 발전설비 안정 운영 대책 등을 두루 살폈다.

서부발전은 14일부터 전력수급 상황실과 24시간 긴급 복구 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다.

이 기간 가상 고장훈련과 기상특보 대비 상황관리 훈련을 병행해 긴장감을 유지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임금체불 근로자 1% 저리융자 지원

고용부-근로복지공단
이달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 인하

임금체불을 겪는 근로자들이 연이율 1%의 저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들의 생계를 위한 정책으로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금리가 인하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7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3개월간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를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사업에 이번 추가경정예산 중 81억 원이 배정됐다.

체불청산지원융자사업은 체불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나 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 융자를 시행하는 사업이다.

기존 사업주 융자의 금리는 1억5000만 원 한도 내 체불액과 관련해 신용 3.7%, 담보 2.2%였다. 근로자생계비용자 금리는 근로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 체불액에 대해 연 1.5%로 시행됐다.

이번 추경으로 사업주는 1%포인트(p) 인하된 신용 2.7%, 담보 1.2% 금리를, 근로자는 0.5%p 내린 1.0%의 금리가 적용된다. 정부는 체불임금을 조속히 청산하고 피해근로자를 지원하기



세종 고용부 청사.

/뉴시스

위해 이같이 금리를 인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에서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융자 신청을 하면 된다. 3개월 안에 금융기관과 융자계약을 체결하고 융자를 실행하면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근로자융자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공단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권장준 고용부 차관은 “임금체불 발생 시 근로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당장의 생계 유지”라며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체불 피해 근로자들이 조속히 체불임금을 청산받고 조금이나마 생계에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폭염 속 녹조발생 위험에 정수장 일제 점검

환경부, 전국 102곳 대응 실태 조사

정부가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지속되는 폭염에 녹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대응책이다.

환경부는 8일 여름철 녹조 발생에 대비해 전국 정수장 102곳에 대한 녹조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5월 12일부터 6월 12일까지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수도지원센터(한국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조류 경보제를 운영하는 전국의 정수장을 대상으로 녹조 대응 준비 실태를 살폈다.

점검 결과 전반적인 녹조 대비 준비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류 차단막 설치 등 조류 유입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와 주기적인 수질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있었다. 분말활성탄도 적정 비축기준인 ‘10일 사용량 이상’으로 확보됐다.

환경부는 정수장 운영 관리자의 조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오는 9월 ‘조류 대응 모의훈련 및 학술토론회’도 개최한다.

전국 지자체의 정수장 운영 관리자



지난 5월 팔당호 일대에 발생한 녹조. /뉴시스

들은 학술토론회에 참석해 조류 발생 정도와 단계별 상황에 따른 취수장·정수장 대응 방안을 토론했을 예정이다. 또한 상수원에 조류가 대량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정수장 대응 시나리오를 시연하는 등 실제 상황에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마른장마와 폭염으로 정수장 녹조 관리 여건은 더 어려울 전망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수장 운영자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보다 강한 경각심으로 정수장 녹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300kg의 적재 능력
VSLAM+매핑 작업 산업용 배송 로봇



대형공간, 대형쓰레기 강력한 흡입력
건식 산업용 로봇청소기



하방 압력 35Kg으로 물걸레청소
습식 상업용 로봇청소기



360도 전방향 안전 확보
스마트하고 안정적인 운송 능력



60cm 최소 주행 폭
다양한 확장 어플리케이션

산업용 배송 로봇
PUDU T300



큰 이물질도 쉽게 처리
미세한 먼지, 흙까지 효율적으로!



AI 카메라로 딥러닝 데이터 베이스
업데이트를 통해 AI 쓰레기 인식

1일 100,000㎡ 건식청소기
자동충전 MT1



지능형 네비게이션 시스템으로
정확히 공간분석하고 이동



자동충전, 자동급수 및 배수
바로 확인하는 청소 결과

습식, 건식
자동충전 CC1

산업 현장에도 AI 시대가 시작 된다!

IL SMART
ROBOT

IL스마트로봇 산업용 로봇청소기는 강력한 흡입력으로 어떤 얼룩, 찌든 때, 기름 때 및 먼지 처리에 뛰어나며 초대형 산업공간 및 오피스, 학교, 마트, 레스토랑, 로비, 병원, 물류센터, 공장, 대형식당, 고기집 등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이 가능한 똑똑한 AI청소기입니다!

제품문의 IL스마트로봇 | 1544-6299 24시간 상담



제품 상담신청

부산시, ‘새뜰마을사업’ 3곳 선정… 국비 93억 확보

내년부터 2030년까지 133억 투입
지난해 이어 올해도 3곳 선정
열악한 주거환경·삶의 질 개선

부산시는지방시대위원회의 ‘2026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결과 3개 지역이 최종 선정되며 국비 9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역은 동구 범일1동, 부산진구 범천2동, 사하구 신평1동이다. 이들 지역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33억원이 투입돼 사업이 진행된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계층 비율이 높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의 기본적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안전·위생 등 생활 기반 확충, 주거 환경 개선, 주민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한다.

올해 공모에는 전국 26개 지자체가 참여해 총 17곳이 선정됐다. 특·시가



부산시청.

/부산시

운데서는 부산시가 유일하게 지난해 이어 올해도 3곳이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동구 범일1동 사업지는 한국전쟁 당시 피란민에 의해 계획 없이 형성된 산복도로 급경사 주거지인 1405-1번지 일원이다. 재해방지 안전시설 및 위험 축대 정비, 경사지 골목 정비 및 마을공원 조성, 노후주택 및 빈집 정

비 등이 추진된다.

부산진구 범천2동은 산복도로변 노후주거지인 1129-10번지 절골·미실마을 일원이 대상지다. 안심마을길 및 방재·공동체 마당 조성, 경로당 신축 및 소화전 정비, 노후주택 및 공·폐가 정비 등이 진행된다.

사하구 신평1동은 태풍 이재민과 충무동 진개장 철거민들의 집단 이주

지인 다대로83번안길 일원이 사업 대상지다. 안전한 마을안길 조성 및 노후 축대 정비, 마을회관 및 골목정원 조성, 노후옹벽 경관개선, 노후주택 및 공·폐가 정비 등이 실시된다.

부산시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해당 공모 사업에 총 26곳이 선정됐으며 총 1157억원을 투입해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우리 주변엔 아직 경제 성장 고도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지원에서 소외돼 정주환경이 낙후된 지역이 남아 있고,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해서는 취약지역에 대한 우선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이번 공모 사업에 선정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7일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프로젝트 추진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이 체결되고 있다.

/경북도

경북도,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협력

㈜에이치에너지 등 민간기업과
지붕형 태양광 사업 확산 등 ‘맞손’

경북도는 7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프로젝트 추진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함일환 ㈜에이치에너지 대표, 광동걸 스틱인베스트먼트(주) 대표, 신도철 스틱얼터너티브자산운용(주)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한 지붕형 태양광 사업의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

았다.

㈜에이치에너지는 경북에 본사를 둔 기후테크 기반 기업으로, 일반 국민이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지붕형 태양광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투자사인 스틱인베스트먼트는 에이치에너지의 초기 투자자로 참여해 성장을 지원해온 국내 대표 성장형 PE사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북도는 사업 대상지 발굴과 공공성·수익성 확보를 위한 행정 지원, ▲에이치에너지는 태양광 발전소 설계·설치·운영 등 전반적 시스템 구축, ▲스티크인베스트먼트와 스틱얼터너티브자산운용은 사업성 검토, 펀드 설계 및 투자자 모집 등을 각각 맡는다./경북=김준한 기자 kih9@

대경경자청, 1600억 규모 투자유치

(주)카팩발레오, BSA생산시설 건립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과 경상북도, 영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7일 영천시청에서(주)카팩발레오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카팩발레오 신순철 대표이사를 비롯해 김병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이남익 경상북도 공행투자본부장, 최기문 영천시장, 문희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주)카팩발레오는 향후 5년간 총 1600억원을 투자하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인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에서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BSA)생산시설을 건립하고, 최소 1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주)카팩발레오는 PHC그룹의 계열

사로 대구시에 본사와 연구소, 경상북도의 왜관과 성주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변속기, 토크컨버터, 트랜스미션부품 등을 생산하는 대구·경북의 대표 중견기업이다.

2017년 현대자동차의 중견 협력사인 한국파워트레인(1993년 설립)과 프랑스 발레오(Valeo)의 합작투자사로 (주)카팩발레오가 설립되었으며, 발레오는 프랑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자동차 부품 공급사다.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에서 생산하게 될 배터리 시스템 어셈블리(Battery System Assembly)는, 완성된 배터리 셀 그룹을 배터리 관리시스템 및 기타 부품과 상호 연결하는 프로세스로 전기차,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된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영암시종고분군’ 국가지정유산 사적 지정

‘구림리 요지’ 이후 35년만의 성과

영암군의 고대 마한 유적이 7일 ‘영암시종고분군’의 이름으로 영암군내 동리 쌍무덤과 옥아리 장동 방대형 고분이 국가지정유산 국가지정유산 사적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영암군에서는 1989년 ‘구림리 요지’ 사적 지정 이후 이뤄진 35년 만의 성과로서, 지역사회는 영암시종고분군 사적 지정을, 고대 마한을 포함한 지역 문화유산 보존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맞고 있다.

영암시종고분군은 5C 중·후반~6C 초에 조성된 유적으로, 전통 옹관묘에서 대형 방형 분구 석곽묘·석실묘로 변화하는 마한의 매장문화를 보여주는 동시에 고대의 토목 기술과 공동체 조직 등의 특성을 엿볼 수 있는 중



옥아리 장동 방대형 고분 전경.

/영암군

요 고고학 자료다.

영암시종고분군 사적 지정은, 2023년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와 함께 영암군의 마한 역사문화 정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영암(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경남도, 15개 마을 생활여건 개선한다

농어촌·도시에 각 16.5억·33억 지원

경남도는 ‘2026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최종 15개 마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사업계획서 검토, 대면·현장평가 등 사업성 평가를 통해 ‘2026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 대상으로 경남도 15개 마을을 포함, 최종 102개소를 선정했다.

경남도는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업을 통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경북, 전남에 이

어서 번째로 많은 사업이 선정됐다.

신규 사업지구인 15개소는 농어촌 지역 14개소와 도시 지역 1개소로 구분된다.

농어촌 지역 선정 마을에는 4년간 국비 최대 16억 5000만원, 도시지역은 5년간 최대 33억원이 지원된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대표적 사업으로서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부터 이어져 왔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지역 이모저모

경남도

내달부터 시내버스 요금 인상

경남 도내 18개 시·군 전 지역 시내버스 요금이 오는 8월 1일부터 200원 인상된다.

이번 요금 인상은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남도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20년 1월 이후 5년 7개월 만의 요금 조정이다.

특히 요금 조정은 버스업체의 인건비 및 물가 상승에 따라 불가피하게 결정된 것으로 요금 조정에 따라 일반인(성인)의 경우 현금 이용 시 기존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카드 이용 시 1450원에서 1650원으로 각각 200원이 인상된다.

/경남=이도식 기자

울진군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 총력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여름철 해양 수온 상승에 따라 비브리오 패혈증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7월부터 9월까지 유통 수산물 수거 검사와 수산물 취급업체 지도·점검, 감염병 예방 홍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비브리오 패혈증은 주로 7월부터 10월 사이,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시기에 집중 발생하는 급성 감염성 질환이다.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섭취하거나 피부 상처가 오염된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으며, 구토, 고열, 오한, 복통, 설사, 발진 등의 증상이 24시간 내에 나타난다.

/울진(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의령군

공모사업 역대 최대실적 달성

민선 8기 출범 3년을 맞은 의령군이 공모 사업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공모 사업 유치 금액은 2021년 477억원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약 3배인 1348억원을 돌파했고, 2023년 1671억원으로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2년 연속 1000억원 달성이라는 성과를 냈다.

특히 의령군은 예산 최초 5000억원 시대를 개막하고, 함께 출산율과 복지 만족도에서 경남 1위를 기록했다.

또 청년 귀농인 최대 전입과 단일 기업 최대 규모 투자 유치 확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

/의령(경남)=이도식 기자

칠곡군

왜관1산단 경쟁력강화사업 승인

경북 칠곡군은 왜관1일반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이 최근 정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왜관1산단은 왜관읍 금산리 일원에 조성된 일반산업단지다. 건립 30년이 넘어 주차장, 공원 등 인프라 개선과 미래 먹거리 산업 유치를 위한 업종 고도화 작업이 시급한 상태였다.

왜관1산단 경쟁력강화사업은 총 사업비 168억원(국비 50% 군비 50%)이 투입된다. 주차장 8곳(436면), 도로개설 L=524m, 공원 4곳 정비 등을 통해 주차문제와 근로자 휴식 공간 확보에 중점을 뒀다./칠곡(경북)=김준한 기자

‘소비쿠폰’ 수혜 기대감… 편의점, PB로 고객확보 나선다

정부, 21일부터 1인 15만원 지원
대형마트 쿠폰 사용처 대상 제외
편의점 업계, 더 큰 반사효과 전망
올해 첫 ‘역성장’ 회복국면 기대

역성장을 기록해 오던 편의점이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되는 민생 소비쿠폰 사용처에 포함되면서 회복 기대감이 일고 있다. 여기에 기업형슈퍼마켓과 대형마트가 쿠폰 사용처 대상에 미 포함되면서 편의점 업계는 더 큰 반사효과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21일부터 정부가 1인당 15만원씩 지원하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 편의점 가맹점이 포함되면서, 편의점 업계가 다시 성장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1인당 15~55만원 상당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쿠폰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이며,



서울 시내 지역화폐 결제 가능 매장 모습. /뉴시스

편의점은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 점포 대부분이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유통가에서는 이번 소비쿠폰 사용으로 편의점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은 온라인 시

장 성장세와 함께 시장 포화, 내수침체 등으로 올해 첫 역성장을 기록했다. 소비쿠폰 사용처 대상이 되면서 다시 회복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 편의점은 올해 1분기, 약 12년 만에 첫 분기별 역성장을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편의점 업계는 지난해 1분기 매출 증가를 6.0%, 2분기 4.6%, 3분기 3.3%, 4분기 3.7%를 이어오다 올해 1분기 처음으로 마이너스(-)0.4%를 기록했다.

올해 월별로 살펴봐도, 역성장 진행 상황은 뚜렷했다.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매출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1월(1.7%), 3월(1.4%)을 제외하고 2월(-4.6%), 4월(-0.6%), 5월(-0.2%)에 매출 상승세가 꺾였다.

한편, 동시에 기업형슈퍼마켓(SSM)과 대형마트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되면서 편의점이 추가적인 반사이익을 볼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소비쿠폰이 1차와 2차에 나눠 지급되는 만큼, 3개월 이상 소비가 진작될 것”이라며 “그 기간 동안 SSM과 대형마트를 이용해 왔던 소비자들이 편의점 소비에 몰릴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편의점 반사효과를 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영향으로, 편의점 업계 월별 매출은 3월(-2.7%)과 4월(-1.9%) 감소세를 보이다가 5월(0.8%), 6월(2.4%), 7월(3.7%)에는 뚜렷한 증가세로 전환됐다.

동시에 지원금 사용처가 아니었던 대형마트 매출은 같은 기간 5월(-9.7%), 6월(-5.3), 7월(-5.5%)로 감소했으며, SSM 역시 5월(-12.4%), 6월(-14.7%), 7월(-11.9%)로 줄었다.

한편, 편의점 업계는 쿠폰 사용 시기에 맞춰 초저가 자체 브랜드 상품(PB) 등을 내세워 모객 확보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정관장 천녹, 키즈녹용 ‘천녹 그로잉 키즈 U7’

정관장 천녹이 3~7세 성장기 어린이를 위한 프리미엄 키즈녹용 ‘천녹 그로잉 키즈 U7(사진)’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천녹 그로잉 키즈 U7’은 뉴질랜드 최상위 SAT 등급 녹용에 한삼덩굴추출물, 홍삼, 두충, 우슬, 모과, 오미자, 천마 등 성장기 어린이를 위한 특화 원료를 맞춤형 설계로 배합한 키즈 전용 프리미엄 녹용이다.

뉴질랜드 청정 환경에서 자란 최상위 등급(SAT) 녹용만을 엄선하였으며, 정관장의 기술력과 철저한 원료관리 기준 8단계(직접계약-생산관리-안전성검증-품질검증-건조관리-건조검증검수-선별-품질검사)가 더해져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 /신원선 기자

‘40주년’ 63레스토랑, 40일간 고객감사 최대혜택

14일부터 ‘테이스트 40, 타임 63’
7·8월 생일고객 할인, 이벤트 마련

프리미엄 외식 브랜드 63레스토랑이 40주년을 맞아 고객 감사 프로모션 ‘테이스트 40, 타임 63(Taste 40, Time 63)’을 선보인다.

63레스토랑은 1985년 중식 파인 다이닝 백리향을 시작으로 양식 일식 뷔페 베이커리 등 다양한 외식 브랜드를 운영해 왔다. 매년 50만 명 이상이 찾는 국내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특히 63스퀘어 고층부에 위치한 레스토랑들은 서울의 랜드마크로서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방문객들에게 사랑받아 왔다.

이번 프로모션은 그동안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7월 14일부터 8월 22일까지 40일간 최대 혜택으로 기획했다. 먼



워킹온더클라우드 전경.

/한화푸드테크

저 63스퀘어 고층부 레스토랑에서는 7·8월 생일 고객에게 특가 혜택을 마련했다. ▲워킹온더클라우드 ▲터치더스카이 ▲슈치쿠 ▲백리향 인기 코스를 본인 40%, 동반 고객 20% 할인해 준다. 코스 이용 고객에게는 40주년 특별 스페셜 디저트도 선사한다. 네이버 사전 예약 고객에 한하며 자세한 내용은

63레스토랑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63레스토랑 40주년 기념! 40개 경품 럭키드로우!’ 이벤트도 준비했다. 63레스토랑과 63뷔페 파빌리온 용산 이용 고객에게 팀당 1장씩 스크래치 복권을 증정한다. 경품은 ▲황금열쇠 1돈 ▲서울세계불꽃축제 2인 좌석권 ▲63

레스토랑 식사권 ▲한화이글스 선수 친필 사인볼 ▲블랑제리 더 플라자 한남 스페셜 디저트 등이다. 이벤트는 63스퀘어 개관일인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12일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최근 SBS ‘생활의달인’에 소개된 ‘63뷔페 파빌리온 용산’은 HD C 아이파크몰 멤버십 앱 회원을 대상으로 주중 10% 요금 할인을 적용한다. 또한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9월 14일까지 ‘농심 웰치스 슬러쉬’ 음료를 제공하고 주말에는 어린이 고객에게 풍선을 선물한다.

63레스토랑 관계자는 “40주년을 맞아 브랜드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프로모션을 기획했다”며 “특히 터치더스카이는 코스 메뉴를 최초로 40% 할인해 고객 관심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롯데마트 저장 일채소 저가 제공

롯데마트가 폭염으로 인한 일채소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리 저장해 놓은 시금치 및 스마트팜 상추·깻잎 등을 저가에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이달 10일부터 전 지점에서 ‘기체제어(CA)저장 시금치’를 저가에 선보인다. 이번 상품은 지난 6월 초, CA저장고에 보관해 놓았던 남해안 및 경남 지방의 영해 시금치다.

CA저장은 온도, 습도, 공기 중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해 농산물의 노화를 억제하고 수확 당시의 맛과 신선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롯데마트의 저장 기술이다.

롯데마트는 이와 함께 스마트팜에서 재배된 상추와 깻잎도 처음으로 선보인다. /안재선 기자

롯데웰푸드, 日 ‘쿨리쉬 바닐라’ 한국 출시

‘설레임 쿨리쉬 바닐라’

롯데웰푸드는 일본 롯데의 인기 아이스크림 ‘쿨리쉬(COOLish) 바닐라’를 한국에서 ‘설레임 쿨리쉬 바닐라’로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일본 롯데의 빙과 브랜드를 브랜드명, 스펙 그대로 도입하는 첫 사례다.

설레임은 2003년 출시된 국내 최초의 파우치(치어팩)형 아이스크림이다. 차별화된 콘셉트로 출시 1년 만에 약 3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대표 아이스크림 브랜드로 자리잡았고, 출시 23년째인 올해는 상반기에만 2000만 개에 가까운 판매량을 기록했다.

일본 롯데의 ‘쿨리쉬 바닐라’는 설레임이 일본으로 건너가 탄생한 제품이

다. 2024년 일본에서 182억원(한화 약 1720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하는 대형 브랜드로 성장했다.

설레임 쿨리쉬 바닐라는 일본 시장에서 검증된 제품 배합을 그대로 적용해 롯데웰푸드 양산공장에서 직접 생산한다. 쿨리쉬의 가장 큰 특징인 미세 얼음을 구현하기 위해 ‘지그라(Ziegler)’ 얼음 장비를 사용한다. 올해 초 도입한 지그라는 아주 작은 얼음 알갱이를 만드는 설비로 아이스크림 ‘와’에 먼저 사용 중에 있다.

한편, 한·일 롯데는 지난해 신동빈 롯데 회장 주재로 열린 ‘원롯데 식품사 전략회의’ 이후 공동 소싱 및 마케팅 지원활동, 양사 제품 교차 판매 등 다양한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신원선 기자

CU, 몽골 물류센터 증축… 1000호점 속도

디지털 피킹 시스템 함께 구축

편의점 CU는 몽골에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대규모 물류센터를 확장 건립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물류센터는 몽골 1000호점 시대를 여는데 핵심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CU에 따르면,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기존 물류센터를 1500평에서 1000평 더 증축하고, 디지털 피킹 시스템(DPS)도 함께 구축했다. 이로써 CU는 하루 최대 700점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물류 역량을 갖추게 됐다.

디지털 피킹 시스템은 불빛이나 화면, 음성 안내를 통해 고객이 주문한 물건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게 하는 전자

안내 시스템이다. 한편, CU는 지난 2023년, 해당 물류센터에 국내 물류센터와 동일한 수준의 스마트 창고 관리 시스템, 소분·분류 피킹 시스템, 디지털 분류 시스템 등 최첨단 기술을 도입했다.

또, 현지 점포에는 인공지능(AI) 기반 자동 발주 시스템도 적용해 운영 효율을 높여 왔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BGF리테일 김태한 해외사업운영팀장은 “몽골의 1인당 GDP는 한국의 5분에 1 수준이지만 CU의 평균 매출은 한국과 유사할 정도로 몽골 전체 리테일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며 “CU는 몽골 사업의 더 큰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전문적인 관리 체계와 최신 비즈니스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신세계백화점 모피 ‘프리오더’ 행사

신세계백화점이 이달 간 본점과 강남점 등 전국 11개 점포에서 모피 ‘프리오더’ 행사를 연다고 8일 밝혔다. 프리오더는 여름철 선주문을 통해 겨울 시즌 신상품과 한정판 모피를 선점해,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번 행사에는 구호, 델라라나, 동우, 사바티에, 진도 등 총 19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신세계백화점은 브랜드 별 스타일 수는 전년 대비 3배 확대된 150여 개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프리오더 상품으로는 고급 모피 소재인 ‘세이블’을 활용한 짧은 조끼 등이 마련됐다.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해당 상품은 가볍고 보온성이 뛰어나 잔털기부터 초겨울까지 활용도가 높다. /안재선 기자

‘전세 낀 아파트’ 비유… 홈플러스 “1조 이하로 인수 가능”

직접 M&A 매물 인수자 유치나서
부동산 담보 차입 2조 조달 전제
MBK 파트너스, 보통주 권리 포기
청산가치 3.7조 평가로 인수 가능

회생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가 1조원 이하의 투입 자금으로 자사 인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인수자 유치에 나섰다. 홈플러스 매각가가 청산가치인 3조 70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소문으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자, 직접 구매 작전에 뛰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8일 홈플러스는 보도자료를 내고, ‘전세 낀 아파트’ 비유를 들며 1조원 이하로 자사 인수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홈플러스 측은 논리는 다음과 같다. 먼저, 홈플러스가 주장하는 자사의 기업 가치는 7조원이다. 그러나 기존 대주주였던 MBK가 2조 5000억원에 달하는 보통주에 대한 권리 행사를 포기한 만큼, 3조 7000억원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해 인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홈플러스 매각가는 3조 7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홈플러스 회생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의 인가 전 인수합병(M&A)이 본격화되면서 인수에 필요한 자금 규모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뉴시스

조사위원이었던 삼일회계법인은 홈플러스의 계속기업가치를 2조 5000억원, 청산가치를 3조 7000억원으로 평가했다. 매각가는 청산가치를 상회해야 한다는 근거에 따라 홈플러스의 몸값은 최소 3조 700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홈플러스 측은 “MBK파트너스가 보통주 투자에 대해 일절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만큼, 인수자는 기존 지분 인수 부담 없이, 신규 자금 투입을 통해 곧바로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써 인수자는 홈플러스를 조사보고서상 청산가치인 약 3조 7000억원 수준으로 평가하며 인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부동산 담보로 한 차입 대금까지 더해지면, 인수자의 투자금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홈플러스가 보유하고 있는 약 4조 8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자산”이라며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활용할 경우, 일반적인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면 약 2

조원 내외의 자금 차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또 현재 홈플러스의 전채 부채 중, 즉시 상환이 요구되는 채권은 약 2조 5000억원에서 2조 7000억원 수준”이라며 “인수자가 담보 차입 2조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부족분을 현금으로 보완한다면, 실제로 투입해야 할 자금은 1조원 이하로 축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삼일회계법인이 집계한 홈플러스의 총 자산은 약 6조 8500억원이며, 부채는 약 2조 9000억원이다.

마지막으로 홈플러스는 인수구조를 ‘전세 낀 아파트’에 비유하며, 인수 비용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회사 측은 “7조원짜리 아파트가 있다. 하지만 이 아파트에는 2조 9000억원의 전세가 들어가고, 전 주인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겠다고 나섰다”며 상황을 가정했다.

그러면서 “새 매수자는 이 아파트의 부동산을 담보로 2조원을 빌려 전세 일부를 갚고, 남은 일부분 현금으로 메운다면, 실제 현금 1조원 미만으로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하이트 제로알코올 쿨라타’ /비알코리아

던킨-하이트

도넛과 즐기는 맥주

‘제로알코올 쿨라타’

비알코리아가 운영하는 던킨이 하이트진로음료와 함께 7월 이달의 음료로 ‘하이트 제로알코올 쿨라타(성인용)’를 출시했다.

던킨은 젊은 소비자층 사이에서 술을 가볍게 즐기는 ‘소버(Sober)’ 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하이트진로음료의 무알코올 음료를 시그니처 제품 쿨라타로 재해석했다.

‘하이트 제로알코올 쿨라타(성인용)’는 ‘하이트제로0.00’ 제품과 던킨이 개발한 포멜로 향 베이스를 함께 갈아 열대 과일 포멜로의 달콤하고 상큼한 향과 시원한 살얼음의 질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여기에 레몬 과즙과 약간의 탄산감을 더해 산뜻하고 청량한 목 넘김을 경험할 수 있다. 알코올 0.00%의 성인용 무알코올 음료로 출시됐다.

비알코리아 던킨 관계자는 “무알코올 음료 인기가 높아지면서 소버 라이프를 즐기는 젊은 세대들이 이색적으로 느낄 수 있는 여름 한정 쿨라타 신제품을 선보였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롯데리아, 모델로 이병헌 발탁… ‘K-버거’ 세계화 도전

리아 불고기, 10억개 이상 판매 기록
이병헌, 글로벌 K-버거 이미지 강화
온·오프라인 캠페인으로 소통 확대

롯데GRS가 운영하는 버거 프랜차이즈 브랜드 롯데리아가 배우 이병헌을 브랜드 모델로 발탁하고 롯데리아의 대표 메뉴 ‘리아 불고기 및 리아 새우’에 대한 신규 광고 캠페인을 진행하며 글로벌 K-버거에 대한 브랜딩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한다.

리아 불고기와 리아 새우는 오랜 시간 대중에게 사랑받아온 메뉴로서 국내를 넘어 글로벌 배우로 등극한 배우 이병헌의 깊이 있는 이미지와 세대를 아우르는 신뢰감이 브랜드가 지향하는



롯데리아가 브랜드 모델로 배우 이병헌을 선정하고 대표 메뉴 캠페인을 전개한다. /롯데GRS

방향성과 맛달아 모델로 발탁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광고 영상은 한국

인의 빨리빨리 문화를 유쾌하게 풀어내 메인 메시지인 ‘한국인의 패스트푸드’가 세계인의 베스트푸드’가 되는 그날까지’를 전달하며 대표 K-버거인 리아 불고기의 한계 없는 맛의 진화에 대한 가치를 담았다. 리아 불고기는 1992년 첫 선을 보인 이후 누적 판매량 약 10억개 이상 판매를 기록하며 부동의 판매량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롯데리아 베스트셀러다.

이번 캠페인은 TV-CF 온·오프라인을 시작으로 디지털광고를 함께 전개하며 주요 서울 시내 버스광고와 인천공항 내 대형 전광판 등 다양한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소비자와 만난다. 이어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 소

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선보이며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소비자 참여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IMC)을 오는 9월까지 전개해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롯데GRS 관계자는 “배우 이병헌과 롯데리아는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두 아이콘으로 언제나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공통 분모가 있다”며 “오랜 시간 한국인의 입맛을 책임져온 리아 불고기의 정통성과 가치를 바탕으로 끝없는 진화를 통해 한국을 넘어 전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브랜드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지엔티파마 “투약 1시간 내 효과 4배”

‘넬로넵다즈’ 다국적 임상 3상 승인

지엔티파마는 뇌졸중 치료제로 개발 중인 ‘넬로넵다즈(Nelonemdaz)’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다국적 임상 3상 시험계획(IND) 승인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뇌졸중 환자가 응급실 도착 후 1시간 이내 투여하면, 뇌 손상으로 인한 장애를 4배 이상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치료제로 기대를 모은다.

이번 임상 3상은 뇌졸중 발병 후 12시간 이내 혈전제거술이 가능한 중증 허혈성 뇌졸중 환자 37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들에게 60분 이내 첫 약물을 정맥 투여하는 등 5일간 총 10회 투여한다. 혈전제거술은 도착 후 90분 이내에 이뤄진다. 주

요 평가항목은 치료 12주 후 환자의 일상생활 독립 여부로, 위약 대비 넬로넵다즈의 유효성을 확인한다.

이번 다국적 임상 3상에는 아주대학교병원 이진수 교수를 중심으로, 미국 파츠버그대학 라울 노구에라 교수, UCLA 데이비드 리베스킨드 교수, 호주 모나시대학 헨리 마 교수, 캐나다 켈거리대학 비조이 매넌 교수 등 세계적인 뇌졸중 권위자들이 참여하며 국내외 20여개 병원에서 진행된다.

앞서 지엔티파마는 국내에서 704명의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2상 및 3상에서 넬로넵다즈의 안전성과 유의미한 장애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스타벅스, 리워드 개편 후 참여고객 증가

3주 만에 50만명 이상 참여

스타벅스 코리아가 리워드 혜택을 대폭 개편한 이후 고객 참여율이 급증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 6월 17일부터 시행된 이번 개편은 리워드 등급 간 혜택 격차를 줄이고, 고객의 선택 폭을 넓힌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에 골드 등급 고객에게만 제공되던 별 쿠폰 혜택이 그린 등급까지 확대됐다. 그 결과 무료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고객 수는 개편 전보다 약 2.3배 증가했다. 특히 개편 이후 3주 만에 약 50만 명 이상이 새 리워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혜택 폭이 넓어진 그린 등급 고객의 반응이 특히 눈에 띈다. 해당 기간 그린

등급 고객의 별 적립 횟수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그린에서 골드로 승급한 회원 수도 약 5배 늘었다. 새롭게 도입된 사이즈업, 푸드, MD(스타벅스 상품) 바우처 등 맞춤형 교환 혜택도 호응을 얻고 있다. 개편 이후 별 쿠폰을 받은 고객 중 절반은 무료 음료 대신 사이즈업, 케이크, 텀블러 등으로 교환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인기 있는 교환 품목은 ▲블랙 사파이어 치즈 케이크 ▲딸기 촉촉 초코 생크림 케이크 ▲프레시 가든 치킨 밀박스 등 푸드류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MD 제품 중에서는 ▲SS 시그니처 텀크 텀블러(503ml) ▲데일리 애플민트 3단 양우산 ▲베베드피노 워터풀 빅백이 높은 교환률을 보였다. /신원선 기자

셀트리온

골질환 치료제 美 출시

9조 데노수맙 시장 공략

셀트리온이 이달 초 골질환 치료제 ‘스토보클로-오센벨트’를 미국에 출시하며 약 9조원 규모의 글로벌 데노수맙 시장 공략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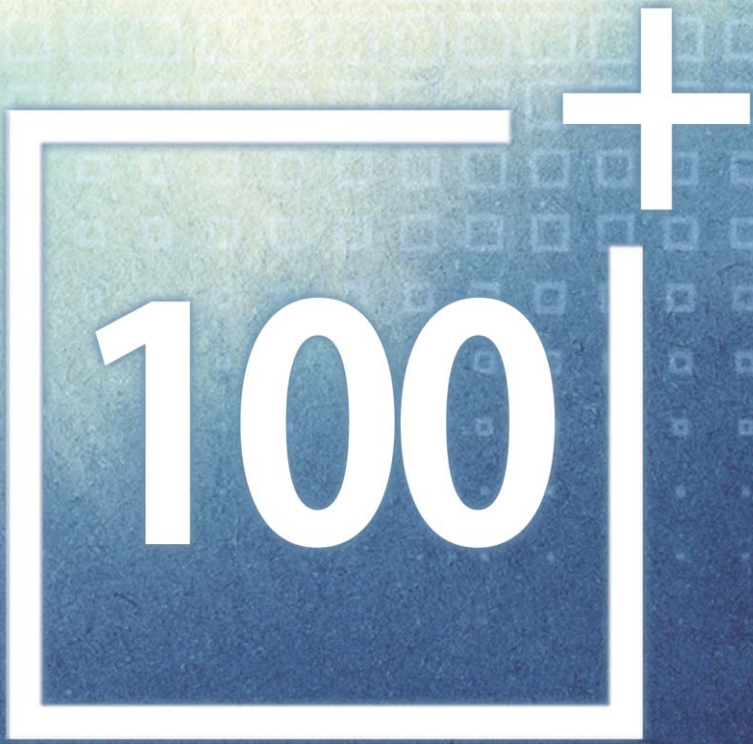
이번에 출시한 제품은 프롤리아(Prolia)-엑스지바(XGEVA)의 바이오시밀러로, 셀트리온은 올해 3월 초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오리지널과 동일하게 모든 적응증에 대한 판매허가를 획득했다.

스토보클로-오센벨트는 미국에서 오리지널 제품 대비 약 5% 인화된 높은 도매가격으로 출시됐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집펜트라’(렘시마SC 미국 제품명), ‘유플라이마’ ‘스테키마’ 등 앞서 출시된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미국 법인에서 직관할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스토보클로-오센벨트 출시와 동시에 미국에서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 병원 그룹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시장 조기 선점에 성공했다.

/이세경 기자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늦어진 은퇴, 달라진 자산시장,
초고령사회 자산관리 전략

|일시| 7월 22일(화) 오후2시 **|장소|**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행사개요

행 사 명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주 제 늦어진 은퇴, 달라진 자산시장, 초고령사회 자산관리 전략
일 시 2025년 7월 22일(화) 14:00~17:00 (VIP 티타임 13:30~14:00)
장 소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주 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등 록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문 의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연사 소개



김학균
-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투자분석부장
-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장



박희운
-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본부장(전무)
- KB증권 리서치센터 전문위원
- 삼성자산운용 리서치센터장



정재훈
-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 수석차장
-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겸임교수



김민승
- 코빗 리서치센터 설립 멤버 및 리서치센터장
- 다수 블록체인 스타트업에서 전략기획 업무 수행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15	〈축사〉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15~14:50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 : 달러약세와 지배구조 개선이 가져올 한국증시의 변화
강연	14:50~15:30	박희운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본부 전무 : 글로벌 자산배분과 리스크 대응형 포트폴리오
	15:30~16:10	정재훈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 수석차장 : 내 집은 자산일까, 부채일까? 초고령사회에서의 주거전략과 부동산 시장 전망
	16:10~16:50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 : 트럼프 2기와 스테이블코인: 미국의 디지털자산 전략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소진공, 청주 오창에 충북지역본부 개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7일 충북 청주 오창 소재 충북지역본부 개소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기존 대전충청지역본부에서 분리·신설한 조직으로 청주·충주·제천·음성·옥천센터를 관할하게 된다. (왼쪽 4번째부터)김영환 충북지사, 박성호 소진공 이사장 등 개소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진공



손해보험협회, 경기도와 기후취약계층 지원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는 경기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기후안전망 강화 공동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기후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총 10억원의 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왼쪽부터)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해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삼성바이오로직스, '인터팩스 워크 도쿄' 참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는 9~1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글로벌 바이오·제약 전시회 '인터팩스 워크 도쿄 2025'에 참가한다고 8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단독 부스를 마련하고 기존 고객사와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신규 고객사를 위한 미팅을 진행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스템임플란트, '주니어보드 1기' 공식 출범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4일 서울 강서에 위치한 머큐어 서울 마곡에서 '2025 주니어보드 1기 발대식'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 주니어보드 1기는 앞으로 1년 간 경영진과 구성원의 양방향 소통을 돕고 조직 내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을 펼친다. /오스템임플란트



iM뱅크, 아동복지시설 주거환경 개선 후원

iM뱅크는 대구 달서구청,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와 함께 '아동복지시설 주거환경 개선사업'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달서구에 위치한 한부모가정 복지시설인 '자용모자복지관' 및 '본마을빌라모자원'에 전달됐다. 신용필 iM뱅크 상무(오른쪽 두번째)와 관계자들이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M뱅크

현대차 정몽구 재단, 기후테크 사회적 공감대 확산

‘그린소사이어티 공개강연’ 기후기술 내용 쉽게 풀어내 스타트업 2팀과 패널 토론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지난 7일 서울 명동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기후테크 연구의 의미를 공유하고, 기후위기 해결에 관심있는 대중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2025 그린소사이어티 공개강연 시리즈'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한 이번 강연은 '땅과 바다의 숨겨진 능력'을 주제로 기후 기술이라는 다소 어렵고 생소할 수 있는 주제를 더 많은 대중과 쉽게 나누기 위해 과학 유튜버 '과학쿠키(본명 이효종)'와 협업해 진행됐다.



지난 7일 진행된 '2025 그린소사이어티 공개강연 시리즈'에서 유튜버 과학쿠키(왼쪽·이효종 과학커뮤니케이터)와 김효은 클라이밋웍스재단 산업탈탄소부문 대표가 키노트 연사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

과학쿠키는 행사 사회와 패널토론 진행을 맡아 복잡한 기술 내용을 친절하고 일상적인 언어로 풀어내며 청중과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행사는 클라이밋웍스 재단의 김효은 산업 탈탄소부문 대표(전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의 기조 강연으로 시작했다.

김 대표는 '산업의 탈탄소 전환,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을 주제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정책, 금융, 시장이 함께 움직이는 시스템 전환과 기술 혁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 전환은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이며, 한국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산업 탈탄소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현대차

이스타항공, 청년 일경험 기회 제공 스마일게이트 알피지, 60여개 직무 채용

‘미래내일 일경험 프로젝트’ 성료 마케팅 팀 직원들 멘토링 진행

이스타항공이 청년들과 함께 진행한 '미래내일 일경험 프로젝트'를 성료했다고 8일 밝혔다.

미래내일 일경험 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와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고 ㈜두원잡이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직무 체험 프로그램이다.

이스타항공은 다양한 실무 경험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업무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청년들의 객관적인 의견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본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선발된 총 67명의 청년들은 5월 초부터 6주 동안 7개 조로 나뉘어 이스타항공 마케팅 팀 직원들로부터 멘토링을 받으며 ▲홈페이지 프로모션 기획 ▲LCC 서비스 만족도 평가 ▲부산 지역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방안 기획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이스타항공의 주요 고객층이기도 한 청년분들의 참신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다"며, "제안에 주신 좋은 아이디어는 실제 업무에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로스트아크 개발·서비스 강화

스마일게이트 알피지가 '로스트아크' 및 모바일 버전 개발·운영 전반에 걸쳐 60여개 직무를 대상으로 집중채용을 진행한다.

스마일게이트알피지는 '로스트아크'와 '로스트아크 모바일'의 개발·서비스 강화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집중채용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프로그래밍 ▲기획 ▲그래픽 ▲인공지능(AI) ▲사업 ▲데이터 등 총 60여 직무에서 인재를 모집하며, 게임 개발 및 서비스 운영 전반에 걸쳐 대규모 인력 충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원자는 스마일게이트 채용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서류 전형, 인성검사, 면접 등 직무별 맞춤형 평가 과정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스마일게이트는 채용 홈페이지 외에도 공식 페이스북과 링크드인을 통해 포지션별 세부 정보와 필요 역량, 회사 소개 등 다양한 채용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일게이트 알피지는 국내 대표 MMORPG '로스트아크'를 개발한 스마일게이트의 자회사로, 지난 6월 '로아온 썸머'에서 시스템 개편 및 신규 클래스 '발키리' 출시 계획을 발표해 유저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또한 '로스트아크 모바일'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스타씨드, '여성창업경진대회' 입상

PR 플랫폼 '폴리처 AI' 운영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PR 플랫폼 '폴리처 AI'를 운영하는 스타씨드가 여성창업경진대회에서 입상하며 기술력과 시장성을 인정받았다.

스타씨드는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제26회 여성창업경진대회'에서 입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131개 팀이 참여해 약 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스타씨드는 최종 수상자 40팀 중 상위 26개 팀에 포함돼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도전! K-스타트업 2025' 통합 본선 진출권도 함께 확보했다.

스타씨드는 생성형 AI 기반의 글로벌 PR 자동화 플랫폼 '폴리처 AI'를 개발·운영하고 있다. 이 플랫폼은 보도자료 작성부터 배포, 뉴스 모니터링, 성과 분석까지 PR 전 과정을 자동화하며, 별도 유료 마케팅 없이 2000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했고 누적 보도자료 생성 1만 건 이상을 기록했다.



손보미 스타씨드 대표가 입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글로벌 뉴스클리핑 기능을 강화해, AI가 키워드 기반으로 국내외 뉴스 기사를 자동 수집·요약하고 감성 분석까지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 기능은 유료 구독이 필요한 해외 매체의 기사도 핵심 요약본으로 전달 가능해 기업의 미디어 대응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손보미 스타씨드대표는 지난 3월 대한상공회의소 여성기업위원회 여성기업위원으로 위촉돼 여성기업 지원 정책 논의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HLB제약, 강성권 중앙연구소장 선임

신약 연구개발 속도

HLB제약이 전문의약품 판매(CSO), 수탁생산(CMO) 등에서 자체 생산 전환으로 사업 체질을 개선한 데 이어 신약 연구개발로 새로운 성장기반을 다지고 있다.

8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HLB제약은 강성권 박사(사진)를 중앙연구소장으로 선임했다. HLB제약은 '약물전달시스템(DDS)' 전문성을 강화하며 장기지속형



주사제 연구개발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강성권 신임 소장은 HLB제약 연구소의 DDS연구팀, 제제연구팀, 한국인관절연구팀 등을 총괄하게 됐다. 특히 HLB제약의 스마트 연속 제조 시스템(SMEB)을 활용해 장기지속형 주사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는 데 역량을 쏟을 계획이다. /이칭하 기자 mlee236@

인사

◆전남 함평군 ◇4급 승진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4급 전보 △기획예산실장 최중욱 ◇5급 승진 △축산과장 직무대리 한영자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장택근 △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김택곤

부음

▲고창규씨 별세, 고진우(세종도시교통공사 경영지원처장)씨 부친상=8일, 강원도 홍천군 실낙원 홍천장례문화원 특실, 발인 10일(시간 미정), 장지 홍천군 선영. 033-434-7788

비슷하면서도 다른 명절



김 양 평 의

일본 이야기

음력 7월 7일은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난다는 칠석(七夕)이다. 칠석은 명절 중 하나로 중국에서 전해져 와서 우리의 세시 풍속으로 자리를 잡았다. 중국에서 건너온 칠석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오래전부터 지역 축제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일본의 칠석 축제 중 특히 한국과 다른 것은 가늘고 긴 종이(短冊; 단자쿠)에 소원을 적어서 대나무 가지 등에 매달아 둔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일본의 여성들이 직녀와 같이 옷(衾)을 잘 만들게 해달라고 빌었던 것이 에도 시대에 여러 가지 색깔의 종이가 등장했고 자신의 소원을 비는 풍습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지금은 절이나 사원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골목길이나, 동네 슈퍼 등에서도 이러한 구조물을 설치해 칠석을 함께 즐기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 다른 또 하나는 일본의 칠석은 양력 7월 7일이다. 과거에는 일본에서도 칠석이 음력 7월 7일이었으나, 메이지 유신 이후 양력을 공식적으로 채택하

면서 음력 기념일을 모두 양력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설날과 추석에 국가 최대 명절로 공휴일로도 지정되어 있어 고향을 찾는 사람들로 인구 대이동이 벌어진다. 일본에서도 1월 1일과 8월 15일이 주요한 명절인데 우리와 다른 점은 이 또한 음력이 아닌 양력으로 쇠고 있으며, 1월 1일에는 인구 대이동이 없다는 것이다. 우선 1월 1일은 집 주변에 있는 절이나 신사를 찾아 신년맞이 행사를 하며, 가까운 지역의 친지를 찾아 인사를 나눈다. 1월 1일만 공휴일이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이 많지는 않아 보인다. 한국에서도 1월 1일은 신정이라 하며 일본과 큰 차이가 없지만, 음력 1월 1일 설날에는 연휴를 활용해 고향을 찾는다는 차이가 있다.

설날인 음력 1월 1일은 양력으로 1월 말에서 2월 초가 된다. 일본에서는 설날과 비슷한 시기면서 우리의 입춘에 가까운 2월 3일을 절분(節分; 세츠분)이라 하며, 이 또한 큰 명절 중 하나다. 절분은 계절이 바뀌는 것을 기념하는 명절로 집안의 액운을 쫓아내고 복을 기원하는 날이다. 절분 날에도 한국과는 전혀 다른 재미있는 행사가 진행되는데 이는 도깨비에게 콩을 던지며

“귀신은 밖으로!, 복은 안으로!”라며 외치는 것이다. 이날은 일본의 모든 절과 사원에서 절분 행사와 콩 뿌리기 의식이 진행되고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도깨비 가면을 쓰고 아이들이 콩을 던지기도 한다.

한국에서 추석은 한 해 농사에 대한 수확을 앞두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날로 매년 음력 8월 15일이다. 일본에서는 양력 8월 15일을 오본(お盆)이라고 하여 조상의 묘지를 찾아가 제사를 지낸다. 오본이 우리의 추석이라 백중(음력 7월 15일)과 더욱 유사하다는 설이 더 유력하기도 하지만 조상을 기리는 행사임에는 큰 차이가 없다. 여하튼 일본에서 8월 15일이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일반 기업이나 관공서 등이 관습적으로 그날 전후로 명절 휴가를 주기 때문에 이 오본 휴가 기간에 고향을 찾는 대이동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 기간이 1년 중 가장 더워서 여름 피서객들의 이동도 가장 많은 시기이다.

한국과 일본이 정서적으로 비슷하다는 것은 오랜 기간 이렇게 같은 명절을 쇠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고 각자의 개성이 엮여있는 것이 참으로 흥미롭기도 하다.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도덕적 용기를 하찮게 여기면?



신 세 철 의

쉬운 경제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1000달러 미만의 절대빈곤상황은 80년대 초에 벗어나서 이제는 선진국 수준이라 할 3만5000달러를 돌파하여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도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삶이 예전보다 향상되었다고 생각하기보다 불안감이 오히려 커가고 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교육불안, 주거불안, 고용불안, 노후불안에 더하여 도덕불안까지 5대 불안으로 시달리고 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 불안해하는 환경에서 근로의욕과 기업가 정신을 불태우려 들기보다, ‘한탕’ 할 건이 어디에 없을 까 하고 두리번거리는 모습들도 보인다.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는 환상 속에서 성장잠재력은 오히려 저하되어 가는 까닭이다.

도덕불감증에 걸린 인사들이 큰일을 맡으면 수치심을 상실하고 오만과 편견에 젖어 남부끄러운 죄를 저지르고도 수치를 느끼기는커녕 외려 거들먹거리며 으스스한다. 저 혼자 잘났다는 소영웅심리에서 비롯되는 근시안적 사고에서 헤어날지 못하다 보면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고도 자화자찬으로 덧칠하기 일쑤다. 이러한 인사가 지도층이 되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고양하는 길을 외면하고 번드르른 가짜 애국으로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기 쉽다. 그 부작용으로 공동체의 신뢰 기반이 무너져 내려 선량한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경제적 빈곤에다 정신적 굶주림으로 시달려야 한다.

도덕적 용기가 하찮게 여겨지는 사회에

서는 원리 원칙이 엇가락처럼 늘어지다 줄었다 하여 지도층이 존경받기는커녕 손가락질받는 마구잡이 사회가 된다. 그런 환경에서는, 나라의 진짜 주인인 국민조차 그렇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자괴감에 빠져 서로 아귀다툼하는 패거리 사회로 전락할 수 있다.

사람들이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상황에서는 늘 지녀야 할 떳떳한 마음 즉 항심(恒心)을 잃게 되어 도덕 불감증에 빠질 수 있다. 지도층 인사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도 열토당토아니한 논리로 부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들의 도덕불안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는 커다란 까닭은 5대 불안 중에서도 도덕 불안 때문임을 과연 부인할 수 있을까? ‘도덕적 용기’가 우리의 자랑스러운 유산이 될 날은 언제쯤 올까? /경제칼럼니스트

오늘의 운세 7월 9일 (음 6월 15일) <http://www.saju4000.com>



취

36년생 격한 언쟁은 서로에게 피해만 간다. 48년생 가정의 화목이 최고의 행복이다. 60년생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라. 72년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날 같아라. 84년생 지인 권리를 편하게 하면 후회하지 않는다.



소

37년생 일의 진행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마음. 49년생 뒤돌아서서 부러워한다. 61년생 가는 사람은 가도록 붙잡지 마라. 73년생 하느님 파랑과 공기도 맑으니 하루 종일 운수대통. 85년생 느긋하게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다.



호랑이

38년생 투자는 심사숙고해서 결정. 50년생 망설이는 사이 기회는 날아간다. 62년생 결과부터 챙기지 말고 다시 계획을 잘 세워라. 74년생 외로움보다 참기 힘든 건 그리움인 듯하다. 86년생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지 말라.



토끼

39년생 자꾸 필요 이상의 의미부여는 상황을 왜곡시킨다. 51년생 타인의 사선에 얽매이지 않도록. 63년생 거짓의 근거 없는 칭찬에 마음이 붕 뜬다. 75년생 좋은 길상한 복은 자연 빛을 따라 모인다. 87년생 변화 속에 기회가 온다.



용

40년생 자식이 아무리 예뻐도 가르쳐야 한다. 52년생 최선의 해결책은 서로 타협하는 것. 64년생 운이 활짝 열렸으니 미뤄둔 일을 해결. 76년생 서운한 마음이 들어도 참아야. 88년생 늦지 않았으니 계속 노력하면 하늘이 도와준다.



뱀

41년생 남의 의견에 휘둘리지 말고 주관을 갖고 행동. 53년생 결혼은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 65년생 약속이 자꾸 다른 사람은 멀리. 77년생 분수를 지킨다면 실수가 적다. 89년생 힘들어도 걸어오던 길을 계속 가야 한다.



말

42년생 오후 외부활동을 자제하라. 54년생 지방에 계신 부모님의 경제적 어려움을 살펴봐라. 66년생 내가 행복한 것이 인류 행복의 첫걸음이다. 78년생 새로운 거래가 생기니 좋은 일. 90년생 즐거운 일이 넘쳐나 이성으로 마음이 복잡하다.



양

43년생 나이 드는 것이 서러워진다. 55년생 솜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날. 67년생 끝까지 참는 것이 불운을 이긴다. 79년생 여러 모임에서 감정을 절제해야 계속 이득. 91년생 상대방의 단점을 건드리면 해가 되어 돌아온다.



원숭이

44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르니 최선을 다하라. 56년생 약간의 먹구름이 끼었으니 주의. 68년생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마라. 80년생 강을 건넌어도 배를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 92년생 생각지 않은 초대로 즐거운 하루.



닭

45년생 사람을 만나는 것이 많이 피곤하다. 57년생 계획에 없던 지출이 생기니 타격이 크다. 69년생 개업은 많은 준비를 하고 시작해야 한다. 81년생 부분적 결함을 탓하지 마시길. 93년생 투기와 투자를 잘 구분해야 슬프지 않게 된다.



개

46년생 심신이 고달프니 휴식을. 58년생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먼저 시작. 70년생 동료와 협업이 서로에게 이익이 될 것. 82년생 마음의 질을 높이는 일은 거창하지 않는데. 94년생 모래 위에 쌓은 성은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린다.



돼지

47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없다. 59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말조심. 71년생 사랑 타령은 시간 낭비다. 83년생 신세 진 사람이 빚을 갚으러 온다. 95년생 삼재 팔란 관재구설이라 했으니 이직하거나 직장 그만두는 일은 심사숙고.



김상회의四季

재물복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모두 자기에게 재물복이 있는지 궁금해한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돈은 필수다. 돈이 많으면 생활이 편하고 돈이 없으면 사는 게 힘들어진다. 재물복이라고 하면 대부분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질 수 있느냐를 궁금해한다.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느냐를 알고 싶은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돈을 버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다. 그중의 하나는 돈을 지키는 것이다. 돈을 벌려고 애쓰는 사람은 많은데 돈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은 드물다. 겹재劫財 사주 같은 경우는 특히 지키기에 신경 써야 한다.

겹재가 많은 사주는 주변에 돈을 뺏아가는 사람이 생긴다. 돈을 벌면 누군가 돈이 필요하다면서 가져가 버리곤 한다. 사업을 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고 잠시 빌려달라고 하거나 밀린 대출을 갚아야 한다고 사정한다. 그럴 땐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는데 겹재 사주는 그게 잘 안된다. 남에게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 것도 겹재 사주의 또 다른 특징이다. 남에게 무언가를 드러내고 싶어하는데 그 욕망을 돈으로 충족하는 경우가 많다. 필요하지 않아도 값비싼 물건을 사는 게 대표적이다. 비싼 물건을 사서 남에게 일부러 보여주면서 만족감을 얻는다.

이런 소비를 한다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이 쌓이지 않는다. 마치 손안에 가득한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돈이 새어나간다. 재물복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재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돈을 지켜야 재물복이 완전하게 자기 것이 된다. 무작정 돈 벌 생각을 하기에 앞서 지키지 못해서 새어나가는 돈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다. 새어나가는 재물을 막지 못하면 돈을 많이 벌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돈을 흘려보내지 않는 것도 재물복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0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1811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각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7	3	8			5		6	1
	1		3					
6				4			9	
			4	7				2
		1				6		
2				6	3			
	2			3				6
				4		2		
8	6		9		5	1	3	

4	6		5					3
		5			2			1
			9	6			4	
	2					8		7
		4				3		
7		8					5	
	5			9	7			
2			6			1		
6					5		7	9

8	1	9	2	6	7	9	8
2	8	7	1	9	6	9	
9	7	6	8	9	2	1	2
6	8	2	9	1	9	7	2
7	8	9	2	8	1	2	6
2	9	1	6	2	7	9	8
8	6	8	1	7	2	9	9
9	2	9	8	6	1	7	
1	9	7	9	6	2	8	2

6	2	2	9	1	8	8	7	9
9	8	1	7	8	9	2	6	2
9	8	7	2	6	2	1	9	8
7	9	6	9	2	1	8	8	2
2	9	8	9	2	7	1	6	
2	1	8	6	7	8	9	2	9
8	7	9	8	6	2	2	1	
1	6	9	2	2	7	9	8	8
8	2	2	1	8	9	6	9	7

서울시 ‘양자과학기술’ 인재양성 박차

SQC 산업전문과정 2기 교육생 모집

서울시가 양자컴퓨팅, 초정밀 센서, 양자암호통신 등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양자과학기술’ 분야 산업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

서울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하 KIST)과 함께 양자과학기술 교육 과정인 서울퀀텀캠퍼스(Seoul Quantum Campus, 이하 SQC)의 ‘산업전문과정’ 2기 교육생을 10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양자과학기술의 사업화 촉진과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양자기술 사업화 심화 과정 교육인 서울퀀텀캠퍼스(SQC)

를 신설했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제1기 서울퀀텀캠퍼스(SQC)를 운영한 결과 바이오, AI, 물류, 통신, 컴퓨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양자기술을 접목한 20개 과제를 발굴하고, 이중 7개의 우수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해당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기술사업화 자금을 지원했으며, 해외 우수 기관과의 기술 교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SQC 산업전문과정’ 2기는 국내외 산학연 양자기술 사업화 분야 전문가들이 교수진으로 다수 참여하는 가운데, 서울창업허브 공덕에서 8월 7일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된다. /이현진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2024년 10월 15°C 기후의병 집중의 날을 맞아 열린 ‘탄소중립! 밖에서 제대로 실천 경진대회’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광명시, 12일 민원·정책제안 ‘공감 콘서트’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서 개최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는 ‘공감 시정’을 위한 소통의 장을 연다.

시는 오는 12일 오후 2시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공감’ 콘서트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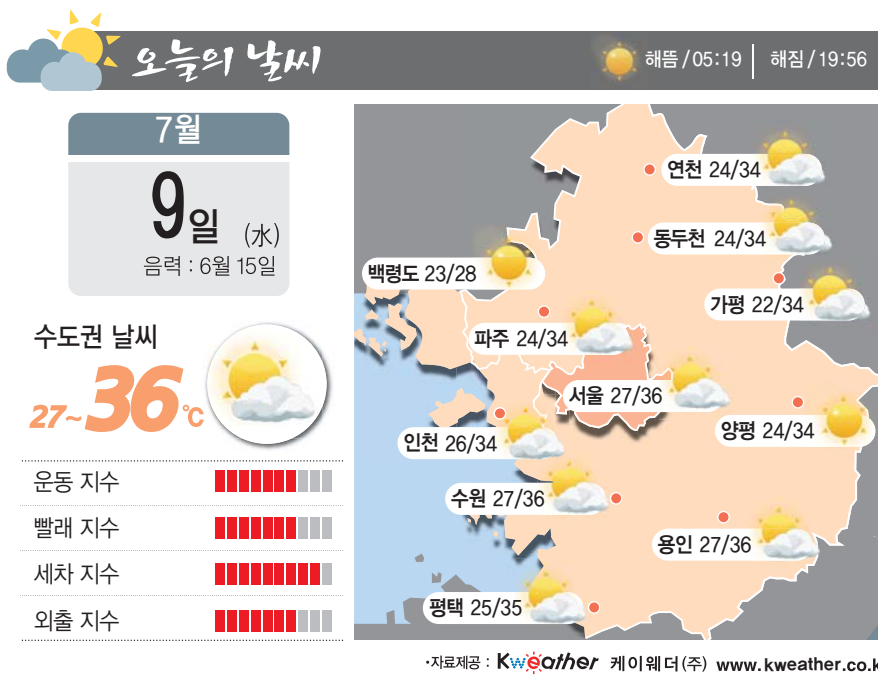
‘공감’ 콘서트는 시민들의 생활 불편 민원이나 정책 제안이 시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시민들에게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운영돼 올해로 6회째를 맞았다.

이번 행사는 ▲박승원 광명시장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연극·마술·스트리트 댄스가 혼합된 아이큐브 창작매지컬 공연, 광명시립합창단의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공연’으로 구성된다.

특히 ‘토크콘서트’에서는 시민들이 가장 공감한 정책과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눈다. 사전에 실시한 시민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민 관심도와 공감도가 높은 정책을 선별했고, 박 시장이 현장에서 직접 해당 정책 취지와 향후 추진 방향을 시민들에게 설명하며 소통할 예정이다.

/광명(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서울지갑-서울시민카드 앱 통합 10월말 본격운영... 앱 명칭 공모

서울시 ‘나의서울+’ 서비스 추가
생애주기별 필요정보 자동 안내
명칭 제안자 100명에 ‘커피쿠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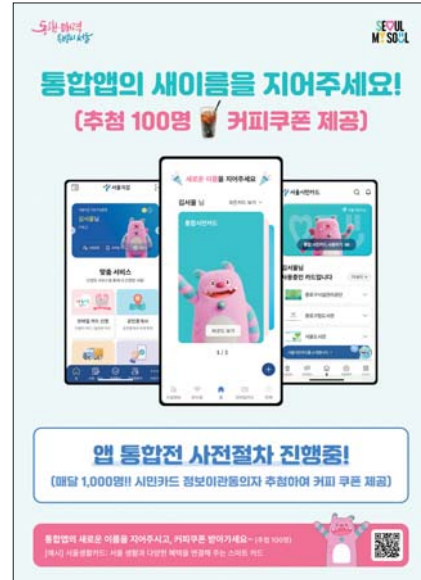
주말 아침, A씨는 쌍둥이 자녀들과 독서한강공원을 찾았다. 서울지갑+시민카드 통합앱에 등록된 다둥이카드를 활성화하자 수영장 입장료와 주차요금을 50% 할인받을 수 있었고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을 둘러 통합앱으로 책을 대출했다. 저녁에는 동네 체육시설을 찾아 앱 태그 후 운동도 했다.

다둥이·임산부카드 등록과 사용, 청년수당 등 다양한 지원 자격 확인부터 국가기술자격증과 같은 전자증명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공공서비스플랫폼 ‘서울지갑’ 앱과 공공도서관과 체육시설 등 시설 이용에 필요한 모바일 회원카드 ‘서울시민카드’ 앱이 통합된다. 10월말 본격 운영 예정이다.

◆ 복지지원 자격 확인부터 도서관·체육시설 이용까지

서울시는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공공서비스 플랫폼 ‘서울지갑’과 공공시설 모바일 회원증 ‘서울시민카드’를 하나의 앱으로 통합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지갑’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34종의 증명서 발급과 청년 월세 등 복지서비스 신청 자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앱이다. 또 다자녀 혜택을 위한 다둥이행복카드, 임산부카드 등 모바일카드 등록 및 사



통합앱 명칭공모 포스터.

/서울시

용은 물론 최근에는 부동산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서비스도 전국 최초로 탑재했다. 현재 누적 가입자는 15만 명이다.

‘서울시민카드’는 시립·구립 도서관, 체육시설을 비롯해 청소년센터, 장난감 도서관 등 837개 시내 공공시설 이용시 사용가능한 모바일 통합회원카드로 현재 34만 명의 시민이 이용 중이다.

‘서울지갑+서울시민카드’ 통합앱은 단순 기능을 합치는 것을 넘어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쌍방향 플랫폼으로의 진화가 목표라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 연령별 맞춤 정보 서비스인 ‘나의서울플러스’ 신설

이를 위해 우선 새로운 통합 앱에 맞춤형 혜택 기능인 ‘나의서울+(플러스)’

서비스가 추가된다. 청소년부터 중장년, 임산부, 다자녀가족 등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안내해 준다.

회원가입과 인증 절차도 QR코드만 스캔하면 누리집 로그인이나 서비스 인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확대하고 있어 한층 더 편해진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반데이터 관리서비스도 확장해 각종 정보의 불법적 위변조 방지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10월 통합 앱 출시를 앞두고 기존 ‘서울지갑’과 ‘서울시민카드’ 이용자의 데이터 이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지갑 사용자는 간편번호 재설정만으로 통합앱을 사용할 수 있고, 서울시민카드 이용자는 올해 말까지 정보 이관에 동의하면 기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시는 서울시민카드가 12월 말 폐기 예정인 만큼 올해 안에 동의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9일부터 25일까지 서울시 엠보팅을 통해 통합 앱 명칭 공모도 진행한다. 시는 추첨을 통해 우수제안자 100명에게 커피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서울지갑과 서울시민카드의 통합은 시민 일상 속을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디지털 행정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중심의 맞춤형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서울생활을 한층 더 스마트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고대 정시 합격선, 연대보다 4년 연속 높아

인문·자연계열 모두 고대가 더 높아
의대 정시 점수 두곳 다 전년비 하락
서울대, 국수탐 백분위 평균 비공개

202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고려대학교가 인문·자연계열 모두에서 연세대학교보다 높은 합격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모집정원이 대폭 확대된 가운데 정시 점수는 두 대학 모두 전년도보다 하락했다. 반면 서울대학교는 국수탐(국어·수학·탐구) 백분위 평균점수를 비공개하며 수험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8일 종로학원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및 대학별 발표를 분석한 결과, 2025학년도 국수탐 백분위 평균 70% 컷 기준으로 고려대 자연계열은 94.49점, 연세대는 94.04점으로 고려대가 소폭 높았다. 인문계열도 고려대 94.00점, 연세대 91.73점으로 격차가 두드러졌다. 서울대는 2020학년도 이후 처음

으로 백분위 점수를 비공개했다.

고려대는 최근 4년간 인문·자연계열 모두에서 정시 합격점수가 연세대보다 높게 형성돼 왔다. 자연계열의 경우 ▲2022학년도 93.99점 ▲2023학년도 95.06점 ▲2024학년도 95.09점 ▲2025학년도 94.49점으로 집계됐으며, 인문계열은 ▲2022학년도 93.33점 ▲2023학년도 94.16점 ▲2024학년도 94.21점 ▲2025학년도 94.00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연세대는 자연계열이 94점대 초반, 인문계열은 90점 초반을 유지하며 고려대와 격차가 이어졌다.

2025학년도에는 의대 정원이 크게 확대되면서 자연계열 상위권 점수가 전년 대비 하락했다. 고려대 자연계열은 전년도보다 0.6점, 연세대는 0.19점 떨어졌다. 의대 정원 확대에 의해 최상위권 수험생이 타 대학으로 이동하면서 이들 대학의 정시 합격선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대는 2025학년도 정시합격선으로 자체 환산점수를 발표했다. 자연계열은 401.5점, 인문계열은 395.7점으로, 모두 600점 만점 기준이다. 그러나 이 환산점수는 수능 표준점수와 가중치가 연동된 방식으로, 수험생들이 해마다 변하는 수능 난이도를 고려해 전년도와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정시 합격선 비교를 더욱 어렵게 만든 요인은 대학별 점수 발표 기준의 변화다. 기존에는 국수탐 백분위 평균점수(최종등록자 기준 70%컷)를 중심으로 공통 기준이 유지됐으나, 올해부터 연세대와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 다수가 각 과목별 점수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고려대는 국수탐 백분위 평균점수(70%컷)와 함께 과목별 점수도 함께 공개해 일관된 기준을 유지했다.

/이현진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관세폭탄 앞두고…아마존, ‘프라임 데이’ 4일로 늘렸다 /사진 뉴시스
▲중국, 74개국에 ‘30일 무비자 입국’ 확대…“관광 활성화”

▲“젤렌스키, 트럼프와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 교체 논의”
▲러 “브릭스, 달러체제서 독립중…러-중 작년 루블·위안화로 335조원 거래”

▲호주 총리, 15일께 방중…다원항 운영권 회수 논의 예정
▲“美트럼프 행정부, 8에 방위비 GDP 3.5%로 증액토록 타진”



편의점
‘소비쿠폰’
수혜 기대감
L1



Life

홈플러스
“1조원 이하로
인수 가능해”
L2



“양방으로 항암, 한방으로 면역강화... ‘평안한 암치료’ 추구”

속깊은 인터뷰

허 봉 수 서울위담한방병원장

최근 항암 분야에서 양방과 한방을 융합한 치료법이 주목받고 있다. 서울위담한방병원은 30년 넘는 기간 동안 연구개발을 지속하며 통합의료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허봉수 서울위담한방병원장을 만나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담적 증후군이란 무엇인가.

“담적 증후군은 위장 외벽이 딱딱하게 굳어지며 소화를 위한 연동 운동에 방해를 주는 질환이다. 이 질환은 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소장, 대장, 심장, 심지어 신경계나 근육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 초기에는 내시경 검사로 미세한 염증만 발견되기 때문에 진단이 어렵다. 그러나 환자들은 소화 불량, 배 아픔, 소화 불량 등을 호소하며 그 증상은 매우 심각할 수 있다. 담적 증후군은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으로, 무엇보다 암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위담병원에서는 암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나.

“양방의 항암요법과 한방의 면역증강요법을 융합해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서는 항암 치료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평안한 암 치료’를 추구한다.

암 환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방사선 치료, 항암제 투여 등 화학요법, 수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에서 비롯된다.

쉽게 말해, 암 치료의 목적은 암 세포를 제거하는 것인데, 정상 세포에서도 괴사, 진액 손상, 면역기능 및 비위기능 저하, 골수조혈기능 손상 등을 유발한다. 독성이 강하고 공격적인 표준 치료가 암 환자의 정상 기능까지 심각하게 훼손해 암 재발, 암 전이의 가능성을 만든다.

이에 따라 위담병원은 1996년부터 항암제의 독성을 완화하고, 손상된 면역 기능은 보존하는 병행요법을 개발했다. 해독, 진액 공급, 소화기능 복구, 골수조혈기능 개선 등에 집중하며 한의학적으로 접근한 보완요법을 충동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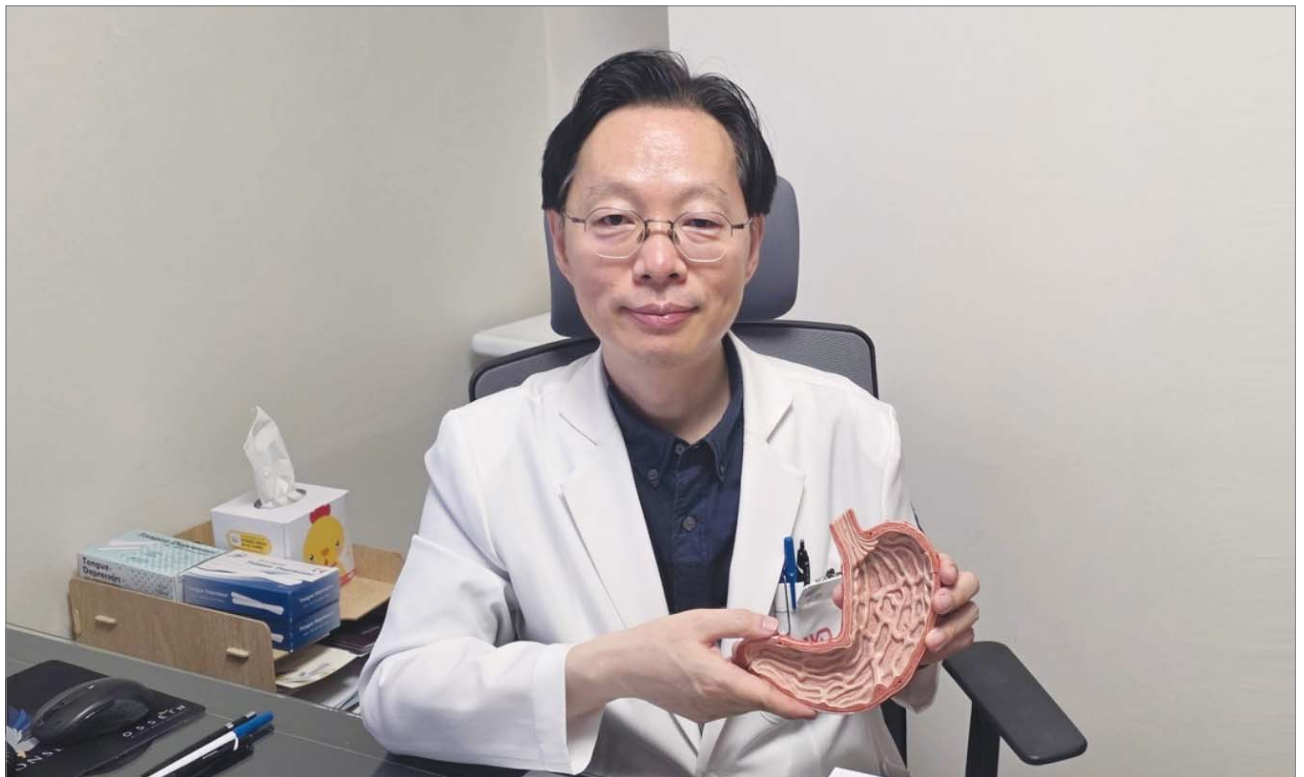
-양방과 한방을 융합하는 방식이 효과적인 이유는.

“양방의 치료법만으로는 미세한 암세포나 전신에 퍼진 암을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 반면 한방 치료는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를 줄여 체력을 회복시킨다.”

특히 위담병원은 항암 표준 치료와 병행하는 한의학 치료에서 7가지 원칙을 세웠고 ▲독성 환경 해독과 정화 ▲변성된 중간 매개 물질 교정 ▲종괴(腫塊)의 소적연견(消積軟堅) ▲혈액순환과 소통 ▲정기부양(正氣扶養)·부정거사(扶正祛邪) ▲정신 관리 ▲식이 및 영양 조절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중 암 치료의 첫 단계이고 전제가 되는 것은 효과적인 해독과 정화를 위한 항산화 요법이다. 각 조직에서 독소가 배출되면 우리 몸은 정상 기능을 회복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암을 극복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

암 치료에서 중요한 또다른 한 가지는 중간 매개 물질의 변성을 교정하는 것이다. 신경전달물질, 호르몬, 면역 관련 단백질 등 중간 매개 물질은 생리학적으로 체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간 매개 물질이 독소 등에 의해 변성되는 경우, 유전자 발현 과정에서 변이가 발생하거나 비정상적인 신호 전달이 진행되면서 암이 발생한다. 다만, 변성된 중간 매개 물질을 교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허봉수 서울위담한방병원 원장은 30여년간 연구개발을 통해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통합医료를 펼치고 있다.

/위담서울한방병원



30여년 양방-한방 융합 치료법 연구개발
부작용·고통 줄여주는 암 치료법 추구해

정상세포 면역력 향상, 독성 해독·정화 등
서양의학 한계점 개선, 암재발·전이 예방
침, 뜸 치료로 스트레스 줄이고 안정 도와

양한방 융합치료법, 세계적으로 주목받아
환자 맞춤형 치료로 더 나은 결과 만들 것

아울러 위담병원의 아로마 고주파 요법과 초음파를 이용한 물리 치료는 암 덩어리 또는 딱딱한 종양을 부드럽게 만들어 파쇄하기 위한 치료다.

위담병원은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를 위해 혈액순환을 중요시 한다. 항상성이란, 우리 몸이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예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때 혈액순환이 잘 이뤄져야, 단순히 세포에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고 장기간 유기적 상호작용이 원활해 진다.

정기부양(正氣扶養)·부정거사(扶正祛邪)는 암 재발과 전이를 예방하기 위한 치료법이다. 정상 세포의 면역력을 향상시켜 정상 세포가 스스로 암 세포의 악성 활동 억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서양의학의 암 치료가 대체로 공격적이고 정상 세포의 기능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서양의학에서 항암은 매우 발달했지만, 그 한계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재발과 전이는 물론, 생존율을 단기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많다.

식이요법 측면에서는 위담병원은 식욕 부진과 소화 및 흡수 기능 감소로 발생하는 식이 불량을 개선하고자 한다. 식이 불량으로 영양 공급이 감소되면 정상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져 암을 이겨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암 세포 증식을 방지하게 된다. 소화, 흡수, 영양이라는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 항암 효과가 있는 유기농

음식을 선별해서 만들고, 특별 개발한 효소와 유담 차를 제공한다.

-암 환자의 일상에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노하우는.

“암 관련 증상이 조절되지 않으면 암 치료의 순응도도 감소하고 삶의 질도 저하된다. 암 관련 증상이란, 암과 직접 관련되거나 암 치료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을 말한다. 즉 암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지만 치료 종료 후에도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를 과소 평가해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암 관련 증상으로는 피로(60~90%), 식욕부진(85%), 통증(50~70%), 불면(30~50%), 오심구토(40~80%), 말초신경병증(6%), 구강건조(19%)가 있다. 해당 증상들은 암 종에 관계없이 나타나는데, 암 병기가 높고, 신체활동지수가 악화될수록 더욱 심해진다.”

-정신적·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은.

“암 치료과정과 재활과정 모두에서 엄청난 정신적, 심리적 부담은 스트레스로 이어진다. 스트레스는 기혈(氣血)순환을 응결시킨다. 또 스트레스성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체내 독성 환경이 조성된다. 이때 활성산소가 과잉 생성되면서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 독성 물질과 그로 인한 허약, 균의 반복 침입 등은 다른 원인들과 연계되면서 암이 생성된다.

결국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 반복되면 면역, 배설, 해독, 대사, 혈액순환 등 체내 전반적인 기능을 저하시켜 서서히 질병이 스며든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스트레스가 암 발생의 강력한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한방 치료는 예로부터 몸과 마음을 함께 치료하는 심신의학의 특성을 갖고 있어 스트레스를 풀리게 한다. 침, 뜸, 치료한약, 명상 등을 통해서 괴로웠던 심신이 안정을 찾도록 한다.”

-향후 양방과 한방의 융합치료는 어떤 방향으로 나갈까.

“양방과 한방이 융합된 치료법은 점차적으로 더 많은 환자들에게 인식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통합 의학이 주목받고 있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환자들에게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고 더 나은 치료 결과물도 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환자 중심의 다학제적 접근이 융합치료의 핵심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KBO, 폭염 대응책 발표...클리닝타임 최대 10분 연장
▲샌디에이고 마차도, 통산 2000안타 돌파...MLB 현역 5번째
/사진 뉴시스

▲토티넘, ‘캡틴’ 손흥민 33번째 생일 축하...향후 거취는 안갯속
▲현대캐피탈, 배구 퓨처스 챔피언 3연승...4강 진출 눈앞

▲김포 루이스, 하나은행 K리그2 2025 19라운드 MVP
▲이승원, ‘김천 최초’ 2025시즌 K리그 이달의 영플레이어상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전 세계인을 연결하는 것,
그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글로벌 AI 기업이라는 원대한 꿈,
처음엔 투자 유치조차 쉽지 않았죠

그때 저희의 가능성을 보고
파트너십을 제안해 주신 KB 덕분에
글로벌 4,000여 개의 기업과 함께하게 된 지금,
전 세계 인구를 연결하는 최종 목표를 꿈꾸며
AI 스타트업들의 롤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꿈꾸는 만큼 펼칠 수 있는 내일을 위해
KB금융그룹이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함께하겠습니다

Korea Basic
KB금융그룹

샌드버드 대표 김동신 | 샌드버드코리아 대표 이상희 *샌드버드는 기업의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혁신하는 AI 에이전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 KB 금융그룹